

부산·양산지역 인권활동가 쉼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파랑샘기금>

2025 보고서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목 차

• 여는 글

/ 정귀순,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2

• 보고서1 : 장벽을 넘어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

/ 정지숙, (사)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4

• 보고서2 : 여행에 대해 생각한, 여행, 나와 세계를 만났던 시간

/ 박용민, 동래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센터장 17

• 보고서3 : 폭삭 속았수대! 1차팀 [숨·쉽·살림]

/ 위애선,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팀장 34

/ 정희정,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활동가 37

/ 정아름,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활동가 38

• 보고서4 : 폭삭 속았수대! 2차팀 [양산휴식연대]

/ 이보은, (사)웅상노동인권연대 상담활동가 47

/ 이은아,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무국장 50

/ 이효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51

• 참고자료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쉽(休) 프로그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53

여는 글

정귀순,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가장 세상을 넓게, 다양하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앞선 사례들을 많이 보아야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에게 해외연수, 해외여행의 기회,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글은 엉덩이로 쓴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활동가들도 현장을 온몸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만 아니라 서너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활동가들은 성장하기도 하지만, 소진되기도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활동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운동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소진되고 지치지 않도록,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를 늘 바라왔습니다.

드디어 이런 바람들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발족하여 12년간 운영되었던 부산·양산·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민들레기금>을 종료하며 참 안타까웠는데, 지난해 인권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면 좋겠다며 기부해주신 귀한 기부자의 뜻에 따라 <파랑샘기금>이 조성되어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멈추어 숨고르기’에는, 강원대 평화학과 이동기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냉전학회의 독일·폴란드 연수프로그램에 활동가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귀한 활동가 한 분이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활동가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유공모에는 한 분을 선정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 무덥던 8월, 해외로 다녀오신 두 분의 이야기들을 촘촘하고 유쾌한 보고서로 만났습니다.

상반기 자유공모의 선정과정에서 활동가들이 쉼은 필요한데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여력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폭삭 속았수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7월 파랑의 활동가들과 다녀온 제주 사전 답사에서, 멋진 공간과 멋진 파트너(‘넓은’님과 ‘연결’님)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든든한 파트너분들 덕분에 8월과 9월, 두 팀이 제주에서 재충전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2박 3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다녀온 분들에게서 제주의 물빛과 숲 향기가 가득하여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덟 분의 활동가들께서 정성껏 정리해 주신 보고서를 묶어 <파랑샘기금>의 첫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금을 출연해 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애써주신 분들, 함께 하신 활동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인권운동’이 되기를 바라며...

2025년 10월 24일

상반기 공모사업 ‘멈추어 숨 고르기’

부산지역 인권활동가의 힘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파랑샘기금> 공모사업

멈추어 숨 고르기

해외연수
(독일-폴란드 평화답사)

대상 인권단체 활동 경력 10년 이상 활동가 1명
- 현 재직자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자

내용 연수 소요 경비 (항공료 및 숙박비)

추진 8. 12(화) ~ 24(일) / 12박 13일

신청 3. 17(월) ~ 3. 30(일) 자정

자유공모

대상 인권단체 활동 경력 5년 이상 활동가 개인 및 모임 4명(개)
- 현 재직자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자
- 모임을 구성할 경우 3인 이내

내용 프로그램 당 최대 150만원 이내

추진 4. 25 ~ 11. 15 (약 7개월)

신청 3. 17(월) ~ 4. 11(금) 자정

■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신청서 parang.or.kr/2025숨고르기신청/
 이메일 rights.parang@gmail.com
● 결과 안내 4월 둘째주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문의 ☎ 051) 710-7125 <파랑샘> 담당자
 ■ 신청서 제출 후 2일 이내 접수 확인 연락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산인권활동가네트워크 파랑샘

상반기 공모사업 참여자 (인권활동 경력 10년 이상 신청 / 각 1인 선정)

내용	참여자	프로그램	기간	지원
해외연수	정지숙 (사)이주민과함께 (23년차)	<한국내전학회> 독일-폴란드 평화답사	8.12~24 (12박 13일)	항공료 및 숙박비
자유공모	박용민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년차)	나를 돌보고 키우는 시간 (베트남 & 라오스)	8.8~17 (9박 10일)	총 소요경비 50%

장벽을 넘어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

들어가며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이 인권활동가의 쉽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멈추어 숨 고르기’ 해외연수에 선정되어 ‘냉전평화답사’에 참여하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다. 냉전평화학회 소속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사기행+박물관 투어의 성격이었는데 역사를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용적 필요성이 있겠으나 인권활동가로서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긴 답사를 마치고 돌아해보니 나에게서는 파시즘의 광기와 인간 존엄의 무참한 훼손, 분단과 냉전체제가 만든 일그러지고 어긋난 삶의 모습들, 그리고 박물관을 유물의 전시가 아닌 현재화된 기억과 정치의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문가의 안내가 없었다면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한 분단의 경계지를 따라 독일과 폴란드를 중회한 것은 행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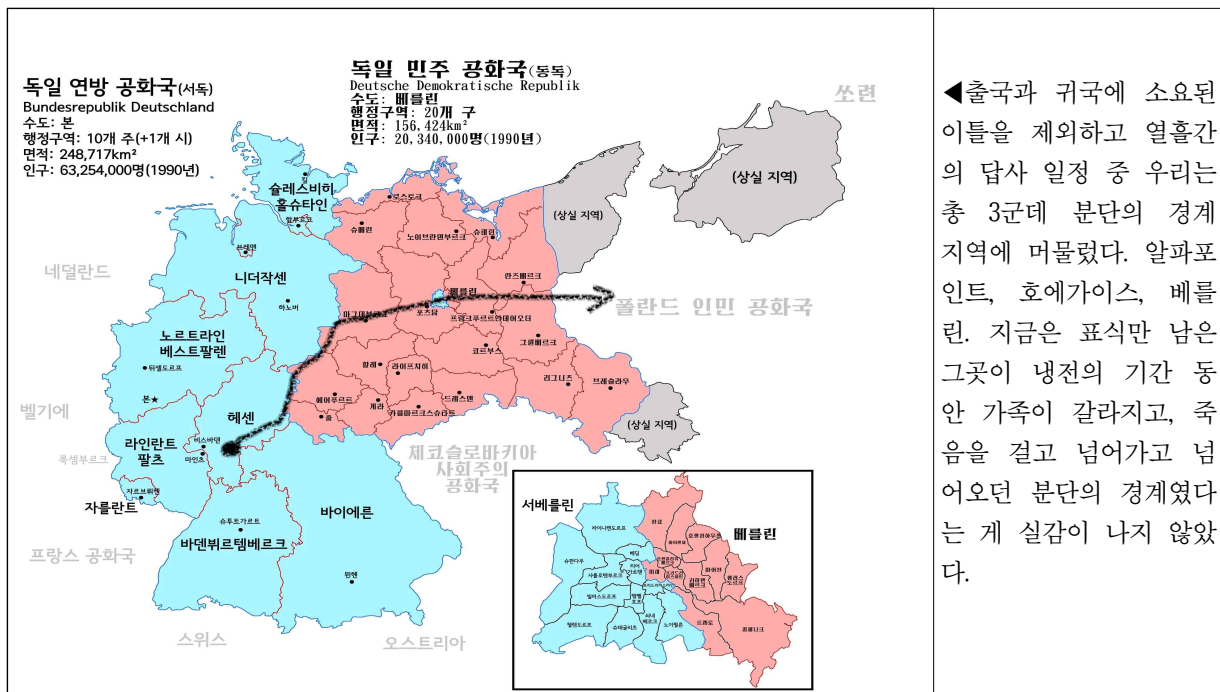


그림 10 답사팀 이동경로. 경계지를 따라 이동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통일 독일 이전의 지도를 사용함.

Day 1. 8월 12일 출국. 인천-> 프랑크푸르트

여행은 사고(incident)와의 만남.

아침 7시 20분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인천공항->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비행시간 15시간, 이동에 걸린 시간 20시간.

거의 하루를 길 위에서 보냈다. 비행기 좌석은 좁고 불편하다. 요즘 거의 모든 항공사가 ‘프리미엄 이코노미’란 이름을 붙여 비즈니스석보다 싸고 이코노미석보다 비싼 좌석을 만드느라 이코노미석이 더 좁아졌다 한다. 게다가 사전 좌석지정에 비용이 5만원~10만원 가량 발생하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복불복. 나는 불복이라 가운데 끼어 앉아 갔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나를 반긴 것은 다언어로 된 환영 메세지. 한국어도 있다, 환영.



그러나 출입국 심사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왜 왔냐, 며칠 머물거냐, 목적지가 어디냐, 귀국일이 언제냐. 이정도는 으레 하는 것이려니 했는데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귀국 비행기 티켓을 보잔다. 한국어로 된 예약증을 내미니 읽을 수 없는 글이라고 짜증을 낸다. 그러더니 돈이 얼마나 있냐 보여달라다. 불쾌하다. 초행길에 넓디 넓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헤매다 겨우 짐 찾아 나와 숙소로 향한다.

그림 11 프랑크푸르트 공항 로비

일행 중 마지막으로 호텔을 들어서니 입구에서 ‘사람하다’ 조성진 대표와 이동기 교수가 직원과 한창 실랑이 중이다. 11개의 방을 예약했는데 9개뿐이란단. 더구나 호텔은 리뉴얼 공사 중이다. 드러난 천장 전선과 다닐 수 없는 계단, 깨진 세면대와 청소하지 않아 곳곳에 먼지를 그대로 두고 손님을 맞다니. 기후변화로 갑자기 높아진 30도가 넘는 기온에도 호텔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다. 독일은 추위 대비는 잘되어 있는데 더위에는 속수무책인 듯. 호텔 방엔 커피포트도 컵도, 마실 물도 없다.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유럽의 문화는 알고 있지만 환대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Day 2. 8월 13일 프랑크푸르트-> 아이제나흐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

몇 시간 잠들지 못했지만 시차 때문인지 새벽에 눈을 떴다. 답답한 방에서 나오고 싶어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선다. 낮엔 한여름, 아침저녁은 초가을이다. 청소부와 홈리스가 도시의 새벽을 연다. 마인강가엔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 산책 나온 개 집사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밤이

길었던 대도시의 아침은 쓸쓸하다.

아침 식사 후 조금 이른 시간 8시. 이동기 교수의 안내에 따라 중앙역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답사한다. 밤에 혼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중앙역 앞 메인스트리트(술과 마약, 매매춘의 구역)과 금융센터가 밀집한 빌딩숲을 건너 도착한 곳은 독일 자유주의 혁명의 발생지이자 자유도시의 상징인 ‘바울교회’다. 이곳에서 독일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통일국가와 헌법제정을 논의했다. 1848년 독일 최초의 자유선거로 구성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회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독일 민주주의와 통일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프랑크푸르트는 자유 도시가 되었고 이후 독일 연방의 일원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자유도시는 1806년부터 1966년까지 존재했다. 한때 로마제국의 한 부분이었던 흔적은 도로와 건물, 이름들 속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곳이 뢰머(로마)광장이다.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랜드마크 광장으로 시장과 축제(북페스티벌이 유명하다)가 열리는 관광명소지만 과거 로마군의 주둔지로 시 청사가 있었던 곳이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고통받는 유대인의 모습 조형물(바울교회)
	
뢰머광장 시 청사	마인강 다리. <포도주빛 바다를 건너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이 여행의 두 번째 이슈. 매일 숙소를 바꿔가며 이동하는 여정이라 주최 측은 온라인으로 렌터카를 예약했다. 그런데 업체에 가보니 ‘차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은 수동운전 차량이 보편적이므로 오토 승합차를 구하기 어려운데, 중개업체와 대여업체 사이에 사인이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난감한 표정으로 대책을 물으니 “쏘리~ 환불 해줄게” 한마디가 끝이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중앙역을 향해 달렸다. 기차 시간 놓칠까봐 달려왔지만 기차는 연착, 탑승장에서 30분 넘게 기다렸다. 현재 독일의 가장 큰 문제가 철도 시스템의 붕괴라고 한다. “민영화 이후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빈자리를 임금이 싼 이주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졌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B의 설명이다.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인구 4만의 소도시 아이제나흐. 구 동독지역이다. 동화 속 삽화 같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마을이다. 동독 시절엔 자동차 산업이 주요 일자리였던 이곳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은 바흐와 루터다. 집을 풀고 바흐 생가에 들렀다. 오래된 작은 집과 부속한 전시실은 전형적인 생가 박물관이지만 음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과 놀잇감, 카페와 작은 음악회 등 아기자기한 장치들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어 놓는다.

Day 3. 8월 14일. 아이제나흐→바이마르

중세 유럽 문화의 흔적

이른 아침, 급히 수배한 렌터카로 10분 남짓 움직여 바르트부르크 성에 도착했다. 어제 오후, 바흐 박물관 창가에서 멀리 내다보이던 산꼭대기 큰 집이 이 성인 모양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다는 이 성이 유명한 이유는 마틴 루터 때문이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루터가 영주의 보호 아래 이곳에 숨어 지내며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이 성경이 특별히 의미있는 것은 현대 독일어의 관용어나 새로운 단어, 문장들이 루터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람은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된다. 문화해설사가 성의 창건설화와 엘리자베스의 전설 같은 선행, 마틴 루터의 다락방, 귀족의 연회장이었다가 나치시대 청소년들의 훈련과 회합 장소로 사용된 홀까지, 장소를 기반으로 한 중세와 근현대 역사 이야기가 이어졌다.

동·서 분단 경계 지역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선다. 포인트 알파에 도착했다. 이 여행의 핵심주제인 냉전과 평화를 향해 다가서는 첫 여정이다. 포인트 알파는 동·서독 경계선에 있는 미군 주둔지다. 넓은 평원에 높다란 감시초소와 군 막사가 있다. 철조망은 사라지고 군대 막사는 냉전 전시장으로, 군인들의 식당은 관광객을 위한 카페테리아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튀긴 감자와 햄버거로 점심을 해결한 후 두시간쯤 가니 느낌이 사뭇 다른 아늑한 도시가 등장한다. 바이마르다. 구 동독지역이며 인구 6만의 소도시지만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높다. 괴테, 실러, 니체, 건축가 바우하우스가 활동하던 지역으로 아테네, 파리, 피렌체와 더불어 유럽 4대 문화도시에 속한다.



바르트부르트 성



바흐 음악을 오감으로 접할 수 있었던 박물관



알파 포인트 전시관



괴테 하우스

Day 4. 8월 15일. 바이마르->호에가이스 괴테와 부헨발트

괴테는 문학뿐 아니라 정치 관료로서 당대에도 부와 명성을 떨쳤다. 그가 자주 들렀던 카페, 연인 폰슈타인을 위해 심었던 은행나무와 그녀의 저택, 산책로와 집필을 위한 오두막 등 마을이 온통 괴테다. 문학과 철학, 예술의 향기로 채워진 듯 보이는 이곳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참담한 학살의 수용소가 있으니 부헨발트 수용소가 그곳이다. 히틀러가 집권하고 파시즘의 광풍이 불어닥치던 시기, 나치는 바이마르 외곽 구릉지대 너무밤나무 숲(괴테의 숲으로 불리는)에 사상범, 유대인, 장애인, 집시, 성소수자를 가두는 수용소를 지었다. 울창한 나무를 걷어낸 자리에 풀이 무성하다. 빼어난 풍광, 시원한 바람, 숲의 향기와 철조망과 벽돌집, 시체 소각장, 생체실험실 중 어느 것이 비현실적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당시 두 종류의 수용소가 있었는데 부헨발트는 노동수용소였고, 아우슈비츠는 대표적 절멸수용소다.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다. 따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전시물을 보지 않아도 공기로 전해지는 느낌이 있다. 서대문형무소, 남영동, 노근리, 거창, 제주 너븐숭이…. 학살이 일어났던 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다.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다.



괴테의 떡갈나무. 1944년 연합군 폭격으로
밑둥만 남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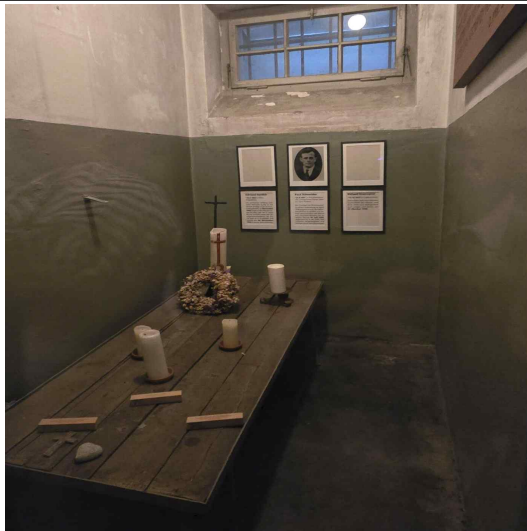
부헨발트 수용소 외곽



Jedem das Seine - 자업자득



지하 처형실과 연결된 시체 소각장



정치범을 수용했던 독거실



정치범, 장애인, 집시, 성소수자 등 ‘신분’에
따라 다른 표식을 가슴에 붙이게 함

Day 5. 8월 16일 호에가이스->베를린

그린벨트로 보존하고 있는 접경지 마을과 마리엔본 분단기념지

아침이 되니 호에가이스 하르츠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봤던 독일마을과는 다른 풍경이다. 여름철 휴양지, 겨울철 스키장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이곳은 강원도 고성과 비슷하다고 한다. 숲을 사이에 두고 동·서독으로 나뉘었던 접경마을이었고 통일 이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본디 한 마을이었던 곳이어서 가족이 서로 나뉘어 오갈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인들이 유독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숲길 따라 군데군데 보이는 표지판이 경계를 넘다 죽어간 사람들을 추념하고 있었다.



아우토반을 달려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른 마리엔본 독일분단 기념지는 생뚱맞은 곳에 있어 한참을 헤맸다. 고속도로 한복판 톨게이트가 분단 기념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분단 시대 이곳은 동독의 경계검문소였다. 동독 지역 한복판에 섬처럼 존재하는 서베를린 사람들과 물류가 이곳을 통해 왕래했다.

Day 6~8. 8월 17일~19일 베를린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숙소 바로 옆이 ‘유대인의 무덤’이다. 사흘 동안 이곳을 거점으로 베를린 지역 박물관을 섭렵할 예정이다. 베를린은 통일 독일의 수도다. 통일 직후 수도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분단 이전 독일의 수도이자 통일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로 베를린을 정해야 한다는 측과 서독의 수도였던 본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했고 제3의 안으로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도 물망에 올랐다. 독일 연방의회의 수도 이전안 표결 결과 베를린으로 결정되었지만 독일 사회는 물론 주변국에서 이를 쳐다보는 눈길도 곱지 않았다. 무엇보다 1, 2차 세계전쟁을 벌인 ‘제국의 수도’이자 ‘나치의 수도’로서 잔재가 남아있는 베를린으로의 복귀에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베를린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 기억에 대한 ‘투자’는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다. 정부가 주도한 전쟁을 기억하고 나치즘을 반성하는 박물관은 물론 민간 재단이나 NGO가 운영하는 박물관도 수두룩하다. 가해자 전시, 피해자 전시, 저항과 의인 전시, 주변부 전시 등 역사를 다면적으로 비추고 있으며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생애사와 가족사 전시에 공을 들였다. 이는 전쟁과 파시즘의 광기 속에서 희생된 개인의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기억과 기념의 중층성¹⁾’을 말하고 있다. 국가나 특정 집단의 ‘기념’이 아닌 모든 주체의 ‘기억’을 역사화 하는 것, 독일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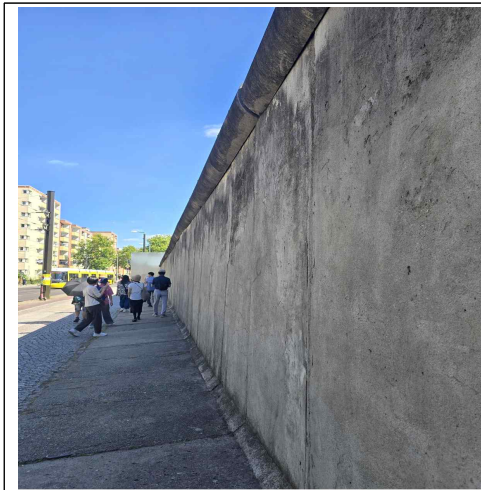
1. 전쟁과 분단의 기억

베를린은 도시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 불릴만 했다. 수많은 박물관과 전시기념관 외에도 거리 곳곳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조형물이나 기록들이 공간을 잇고 있었다. 분단의 장벽이 있는 베르나우어 거리로 통하는 베를린 노르트반호프는 ‘유령역’으로 불린다. 냉전시대 동베를린의 마지막 역은 넓고 슬럼가 느낌이다. 일부러 그렇게 뒀단다. 지금은 지하철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분단 시절 이곳은 폐쇄된 역이었다. 동·서 베를린에 이런 유령역이 2군데 있는데 통일 후 다시 사용하면서 옛 모습을 보전해 분단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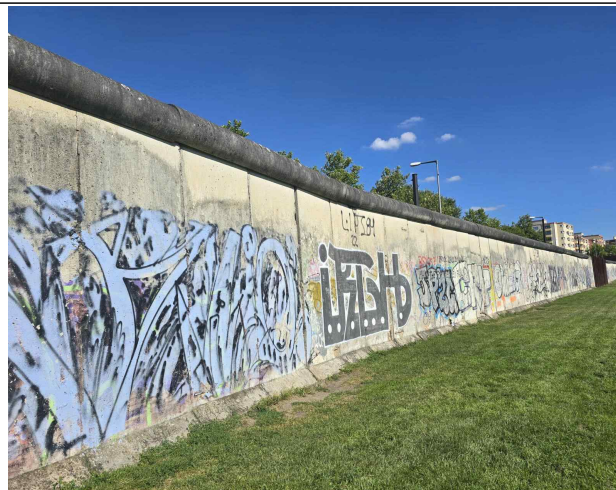
동독박물관은 요즘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이다. 분단 시절 동독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재미있게 재현했다. 마치 모텔하우스처럼 꾸며진 주거공간, 학교, 유치원, 관공서, 병실, 엘리베이터 등 공간에 들어가 앉아보고 만져볼 수 있다. 영화 ‘굿바이 레닌’을 박물관으로 구현한 것처럼 느껴진다. 동독 출신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콘텐츠이자 공산주의 정부가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억압했는지 보여주는 걸 잊지 않음으로써 체제의 우월성과 서독 흡수통일의 정당성을 구현한다.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만들고 반파시즘 장벽이라 불렀다. 자유진영의 파시즘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동베를린 쪽에 내벽을 쌓고 순찰로, 철조망, 외벽으로 겹겹이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동쪽의 장벽은 시선에서 차단된 공간이었던 반면 서쪽 장벽은 서독 쪽에서 보면 집 건너편 길가에 위치한 시멘트 담벼락 같이 느껴졌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았던 그라피티가 가득한 베를린 장벽은 서독 쪽에서 조망된 것이다.

1)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기억들이 서로 겹치고 충돌하며 복잡한 층을 이루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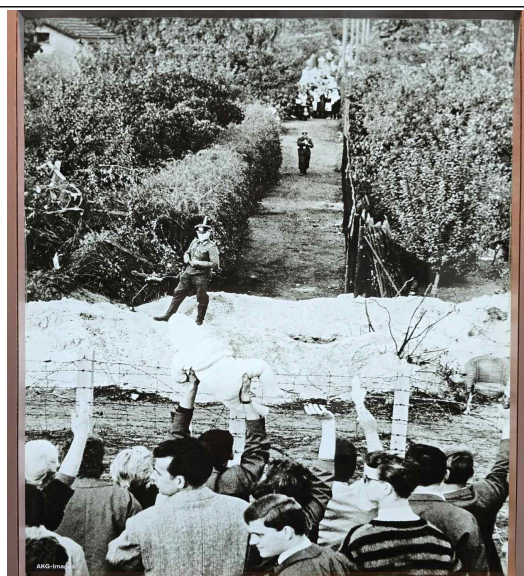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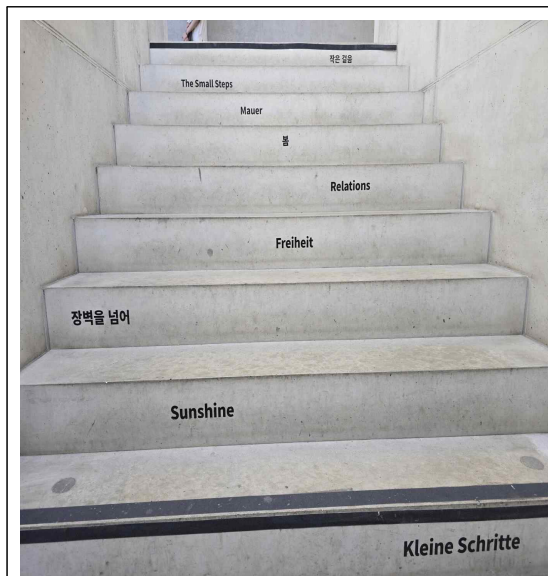


베를린 장벽_동독 측 외벽



베를린 장벽_서독 측 외벽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장벽은 주민들의 삶을 분절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장벽 박물관은 나뉘고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를 소리쳐 부르고 먼 실루엣으로 확인하던 그리움의 언덕에 지어졌다. 그리고 일상이 갈라지고 망가진 현장을 시간과 사람 속에서 드러낸다. 태어난 아들을 장벽 넘어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아기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린 사진 속에서 애절한 그리움과 간절함을 읽는다. 박물관 내부 계단에 한글로 된 ‘장벽을 넘어’ ‘평화’ ‘작은 걸음’은 한국이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깨닫게 한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통일은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균열과 갈등의 출발이었다. 특히 동독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해체되고 5개의 주가 서독에 편입하여 흡수통일 된 것이어서,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이었다. 동독 산업의 2/3가 몰락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박탈감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망으로 배신감을 느꼈다. 서독 사람들은 그들대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이 불안했고, 높은 세금을 내고 구축한 복지 인프라에 대해 동독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실망하며 통일의 긍정적 이미지가 반감되었다.

2. 나치와 홀로코스트의 기억

독일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전범국으로서 파시즘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내부적으로는 파시즘의 잔재를 청산하고 외부적으로는 독일은 두 번 다시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보여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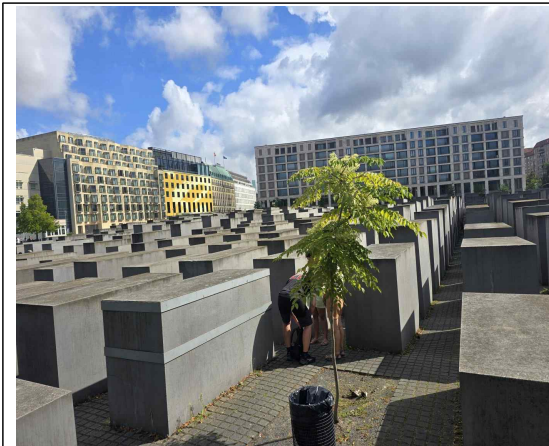
흔히 유대인의 무덤으로 불리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정식 이름은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다. 비석이 연상되는 까만 콘크리트 기둥이 가득 찬 기념관은 베를린 도심 한가운데 있다.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문, 연방의회와 수상 관저, 각국 대사관이 인접해 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독일 우파 주도로 뉴욕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 설계했다. 나치희생자 추념관이었지만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반성없는 기념관 건립’이라 비판했고 독일 좌파들은 ‘왜 유대인만?’이라며 특권화된 위압적 공간이라고 비판했다.

각기 다른 높이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지상을 채우고 있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 굴곡진 땅의 기울기로 인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비석의 아래 즉, 무덤 내부는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비석과 그 아래 전시관은 바로 연결되지 않고 살짝 어긋나 있는데 이는 기억과 역사의 간극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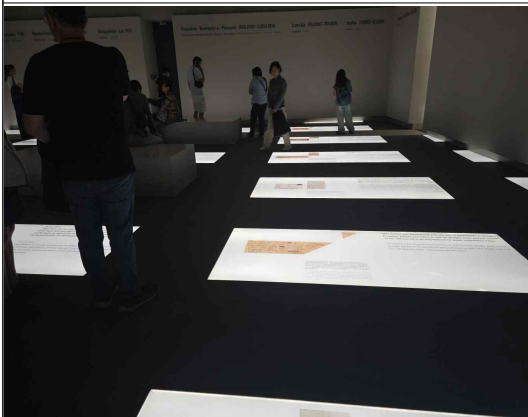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15명의 포트레이트와 마주한다. 학살된 유대인 중 상징성이 있는 15명을 뽑아서 그들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사진과 소장품, 영상 등으로 구성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을 향해 묻고 있는 듯하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은 미국의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설계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시공간이 아니라 건축물과 내부 공간을 통해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저마다의 시선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위에서 조감하면 망가진 다윗의 별 모양이라는 지붕, 사면체가 아닌 미로 같은 공간의 이어짐이 포스트모던한 예술작품을 접하는 느낌이었다. 마름모꼴 어두운 방, 갈라진 틈 사이로 희미한 햇빛 한 조각이 쏟아지고 귀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벽 너머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 들려온다. 유대인들이 간혀 있던 수용소 공간 얇은 벽 너머는 바로 어제 그가 속해있던,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일상의 시간’이다. 떠나면 섬에 유배된 것보다 사람들 속에서의 단절은 곧 닿을 것 같지만 잡지 못하는 희망으로 인해 훨씬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기억의 공백’으로 불리는 방도 인상적이었다. 쇠로 만든 각기 다른 표정의 얼굴 모양 1만개가 바닥에 널려 발걸음 아래 부딪치며 찰랑찰랑,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이동기 교수는 역사가 꼭 이 조각들 같다고 했다. 사람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재에 소환하여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역사는 박제된 과거 어느 순간의 현실일 따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EH 카아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의 무덤(지상)



유대인의 무덤 내부(지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Day 9~11. 8월 20일~22일 폴란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추모 박물관

베를린에서 바르샤바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칸칸이 나뉘어진 기차는 처음이다. 폴란드 국영 철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차라 그런지 느낌이 다르다. 폴란드는 EU 소속이지만 유로가 아닌 고유 화폐 '즈워티'를 아직 사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18세기부터 나치 정권 집권 전까지 유대인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다. 전세계 유대인의 90% 정도가 동유럽에 거주했는데 그중에서도 폴란드에 많이 정주하게 된 이유는 주거와 경제활동에 권리를 많이 허용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인종주의에 기반한 반유대주의가 제도화되었고 계토를 만들어 강제이주 시키기 시작했는데 폴란드 전역에 600여개의 계토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다. 독일과 폴란드의 경계이자, 1400만명의 서독인들이 동유럽에서 추방되어 살해당한 아픔이 있는 오더강을 지나 어느덧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바르샤바 유대인 박물관은 규모와 소장품, 실험적 전시가 압도적이었다. 계토가 있었던 곳에 지어졌으며 빌리 브란트의 '무릎꿇기'로 유명한 추모비가 이곳 마당에 있다. 1970년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폴란드 방문 일정 중 기념비를 방문했는데 현화한 이후 갑자기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국가 원수의 방문은 촘촘히 계획되어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게 관례인데 사전 협의 없는 돌발행동이었기에 의도와 정치적 메시지를 읽기 위한 논란이 분분했다고 한다. 이 행위는 진정어린 과거사 반성의 표상처럼 회자 되지만, 기념비의 주인공이 유대인 희생자가 아닌, 게토 봉기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반나치 저항 투사였던 자신을 투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이 나치와 홀로코스트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폴란드의 유대인 박물관은 폴란드 내 유대인 1,000년의 역사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폴란드 정착부터 게토와 홀로코스트까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유럽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종교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고 고유한 전통을 이어간 모습들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은 온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채워졌다. 크라코프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지만 예약된 시간을 놓치면 당일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다. 예약자 이름과 여권을 대조한 후 들어갈 수 있으며 언어별 안내자를 따라 투어해야 한다.

아우슈비츠는 절멸수용소다.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600만명의 장애인, 집시, 성소수자, 정치범들이 살해당했고 그중 절반인 300만명이 유대인이며 이곳 아우슈비츠에서 110만명이 살해당했다. 학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물적증거(엄청난 양의 옷, 신발, 가방, 머리카락 등), 벽면을 가득 채운 희생자들의 초상과 이름, 수용소 사진 등은 군인들이 거주하던 관리동에 전시되어 있다. 여기를 돌아보는 것도 한나절이 걸린다. 이곳에서 다시 나와 셔틀버스를 타면 수용자가 도착해서 ‘분류’ 되고 막사 또는 가스실로 보내지는 현장으로 데려다준다. 정문에는 부헨발트 수용소처럼 경구가 새겨져 있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 독일군대는 학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남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막사를 불태우고 가스실을 폭파했다. 시체 조각장 무너진 돌에선 여전히 매캐한 그을음 냄새가 난다.

여행이 끝난 후

12일간의 긴 여정이 끝났다.

일정이 빠곡하고 눈과 머리에 답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멈추어 나를 돌아보자 작정한 것은 이루지 못했다. 생각이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여 하루의 여행을 그날 그날 익혀내지 못했다.

수많은 박물관과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충분히 보았지만 ‘왜’ 기억하는가를 통찰하기엔 부족했다.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활동가들과 함께였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채워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만행과 폭력적 ‘인간성’에 한 반성이 인권선언의 출발이었음을 다시 생각한다. 휴머니즘의 몰락이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권을 키우고 퍼트렸다. 전쟁과 폭력을 반성하고 성찰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혐오, 인종차별과 파시즘이 힘을 얻어가는 현실을 목격한다. 개인의 망가진 삶의 원인을 난민·이주민에게서 찾으려 하며, 급증하는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극우정당이 약진하였고 세를 불러가고 있다. 인류는 참혹한 전쟁 폐허에서 평화를 일구어냈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영속적이지 않다. 폭력의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평화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진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행이 끝난 후 고민이 더 깊다.

여행에 대해 생각한, 여행, 나와 세계를 만났던 시간

(파랑샘기금 지원 자유공모, 베트남-라오스 11박 12일 후기)

박용민,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 가야만 하기보다는, 가고 싶은 곳을 떠나는

<멈추어 숨고르기> 공모가 파랑에서 공지되었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 내가 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기엔 거리가 있기에 인권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번 응모해보면 어떠하겠는가 라는 제안을 받고도 망설였다. 지금 내가 멈추어 숨을 고를 만큼 숨이 찬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내 삶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지금 내 삶에서 이런 기회가 필요한지 모호했다. 인권센터 채수탁 무산 후, 마음의 생채기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운 좋게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를 챙겨볼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부터 청소년상담센터까지 계속 활동이 이어진 만큼 갈 수 있다면 혼자만의 평화로운(!) 휴식을 취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여행에 대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 여행의 동기에는 회피동기와 접근동기,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회피 동기는 현실을 벗어나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것이라면, 접근 동기는 어떤 곳을 가고 싶은/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지금껏 내가 다닌 해외여행을 떠올려보면 어디에 꼭 가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회피 동기에서 기인했다. 파랑샘기금의 자유공모에 응모하겠다고 생각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실을 벗어나서 갈만한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 지난날 무척 좋았던 베트남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2008년 지인들과 함께 14박 15일 일정으로 하노이와 사파, 그리고 호치민을 갔었다. 각자 선호하는 장소를 따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통 관심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당시에 나는 사파를 갔었다.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일구었던 사파의 다단계 논을 트레킹하면서 그 아름다움과 그들의 성실함에 무척 감동받았다. 원주민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3,413미터의 판시판산을 1박 2일로 등정했던 기억도 강렬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선 사파를 중심으로 하노이와 닌빈, 세 곳만 가기로 정했다. 닌빈은 베트남 북부를 찾던 중 발견한 지역이었는데, 자연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었기에 트레킹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선택했다.

그런데 여행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멈추어서 숨을 골라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일정을 구성하는 일이 여의치 않았다. 사적지를 걷거나 트레킹/등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 듯하고, 베트남에서

숨을 고른답시고 명상처에 콕(!) 틀어박힐 수도 없지 않은가 싶었다. 여행 2~3주 앞두고, 날짜별로 얼마나 머물며 해당 도시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도시 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등 교통과 숙박 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가 멈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여행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막상 가게 되면 거기에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행에서의 세 가지 원칙만 세웠다. 첫째 일상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한국에서처럼 아침마다 달리기 한다는 것, 둘째 조바심 내며 여기저기 많이 구경하기보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걸으면서 천천히 다니겠다 라는 것, 셋째 당일 내가 보고 생각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기록해두기. 나쁘진 않은 여행 방식이었으나, 여행이 끝난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약간의 아쉬움도 없진 않다.

원래 여행 계획은 금요일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로 출발하여 오전 10시 하노이 도착. 하노이에서 이틀 머문 후, 사흘째 되는 일요일 밤에 슬리핑 버스 타고 월요일 새벽에 사파 도착. 사파에서 사흘 머문 후 수요일 밤에 슬리핑 버스 타고 닌빈으로 갔다가, 닌빈에서 일요일 오전에 하노이로 복귀. 월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월요일 아침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닌빈이 아닌 라오스 루앙프루방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사파까지는 동일했으나, 수요일 밤 야간버스 및 기차를 타고 약 20여 시간 이동하여 목요일 오후에 루앙프루방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비엔티안으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머문 후, 마지막 날인 일요일 밤 8시, 비엔티안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갔다가, 하노이 공항에서 월요일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월요일 아침 7시에 도착하였다.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도시를 다녀온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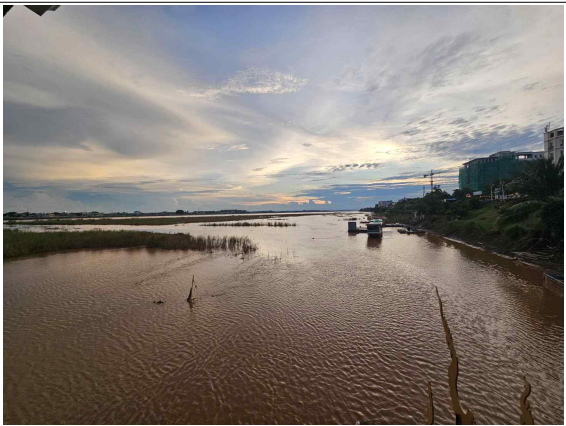
여행은 재미있었다. 롱비엔교를 부들부들 떨면서 걸었던 일이나 사파에서의 오토바이 라이딩, 여행의 재미를 추구한답시고 고생길을 부러 자처했다가 불편함에 압도당해 나자빠진(!) 사건도 있었다. 생각하지 않았던 라오스를 방문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와 베트남/라오스 인민의 정치적 자유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리고 여행이란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여행 후기는 세 쪽지를 다루었다. 첫 번째 쪽지는 이번 여행에서 내가 만났던 세계에 대해, 둘째 쪽지는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내 인식에 대해, 셋째 쪽지는 여행 동안 관찰한 현실에서 생겨난 물음에 대해, 나를 정리해보았다. 그 외 이번 여행 동안 도움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록했다.

2. 낯선 세계 : 호기심을 촉발하는

내가 여행을 떠났구나 라는, 익숙한 세계가 아닌 낯선 세계와 마주하고 있음을 처음 느낀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보았던, 중국 땅의 거대함이었다. 지금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갈 때는 항상 야간으로만 비행기를 타고 다녔기에 중국 땅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시속 800여 킬로로 달리는 비행기에서 육지를 가로질러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줄기²⁾를 약 20~30여분 넘게 창문으로 보고

2) 처음에는 중국에서 가장 크다는 장강(양쯔강)인줄 알았는데, 내가 탔던 비행기의 하노이와 부산 간 항공 경로를 지도 상에서 검색해보니 중국 남해로 유입되는 남부에 위치한 주장강(약 2,200여킬로로서 중국에서 세 번째로 긴강)이었다.

있자니, 중국 땅이 크고 넓구나 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 줌으로 당겨서 바라본 중국의 강	비엔티안 메콩강 강변 개발 사업. 맞은 편의 육지가 태국임
	
루앙프루방 메콩강 강변 개발 사업 현장	비엔티안 강변 개발 사업 마무리되어 (오른쪽) 관광지로 활용되는 곳

라오스 루앙프루방이나 비엔티안에서 걸거나 달리기를 하며 보았던 메콩강³⁾에 대한 느낌도 이와 비슷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호치민에 갔을 때도 메콩강을 봤고 메콩강 투어를 했던 기억이 있던지라, 하나의 강이 여러 국가에 걸쳐 흐른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만약 강을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트레킹하거나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미있는 경험이겠구나 싶었다.

메콩강은 낙동강과는 달리 완전히 진흙색이었는데 우기 때 특성이라고 했다. 머물렀던 숙소가 메콩강 주위였기에 아침에 강변을 따라 걸거나 뛰었는데, 여기저기 강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⁴⁾ 비엔티안의 경우 메콩강을 국경 경계로 해서 건너편이 태국이었다. 달리면서 보니 강폭이 줄어드는 지역은 약 100미터 전후로 줄어들었다. 태국이나 라오스 국민이 어떤 사건이 연루되어 자기 나라를 피해야 할 때, 배 타고 건너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 보였다. 중국의 댐 건설 이후 4-5월

3) 동남아의 젓줄로 불리는 메콩강은 약 4,900여킬로에 달하며,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걸쳐 흐른다. 이 중 라오스가 가장 길게 걸쳐져 있는데 약 1,900여 킬로미터이다.

4) 루앙프루방과 비엔티안에서 뛰다가, ‘메콩강변 관리사업’이란 팻말과 한국 기업 이름이 곳곳에 있었다. 매년 물난리로 피해를 보던 라오스가 홍수 피해 최소화 및 제방 침식 예방 차원에서 2006년부터 비엔티안 메콩강변 관리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한국의 유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1차 사업은 비엔티안 중심부 메콩강변 12.3km에 대해 8년간 진행되어 2014년 끝났는데 이후에는 범람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본 것이 2차 메콩강변 관리사업이었다.

건기에 특정 지역의 경우, 메콩강 물이 말라서 강바닥을 걸어서 라오스와 태국을 서로 건너가는 영상이 있기도 했다.⁵⁾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38선을 기준으로 건너갈 수 없는 북한이 있는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사파 도착 첫날, 오도방구를 빌려 베트남-중국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라오까이로 갔다. 예전에 터키 여행을 혼자 갔을 때 시리아 국경을 육로를 통해 넘어갔던 적이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재미가 적지 않았기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50CC의 작은 오도방구를 타고 라오까이에 도착하여 중국-베트남 국경 검문소로 찾아가는 일부터 쉽진 않았다. 구글 지도를 네비로 계속 켜두고 가 기엔 데이터가 부족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파파고와 손짓 몸짓으로 물어 물어서 라오까이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검문소에 들어가니 중국 공안들이 곳곳에 있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사람과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 모두 이 건물에서 통과하였다.⁶⁾ 여기도 라오스와 태국처럼 홍강이란 강이 베트남과 중국 국경의 경계를 이루었고 다리가 있었다.(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라고 한다) 해당 국경 검문소를 넘어있는 건물에는 중국하구(中国河口)라고 크게 쓰여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 홍강부터는 중국의 영토임을 의미하는 듯했다.



문제는 중국을 넘어간답시고 왔는데 여권을 깜빡하고 들고 가지 않은 것이었다. A4 여권 복사본이 있긴 했으나 이를 갖고 중국으로 넘어갈 순 없었다. 공안에게 파파고의 힘을 빌려 불쌍한 표정을 하며 복사본 여권을 보여주며, 잠시 중국 땅만 좀 밟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태도(!) 없었다. 결국 국경 검문소 구경만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사파로 복귀했다. 사파에서 닌빈 대신 예전에 없던 라오스행으로 바꾸었던 것은 출발 전 지인의 제안이 있기도 했으나, 이런 아쉬움도 한몫 했다. 사실 하노이에서 사파로 넘어가는 버스 안에서 닌빈의 숙소를 예약하고, 가려는 곳도 정해두었다. 하지만 사파에서 사흘을 보낸 후, 트레킹 위주의 닌빈 보다 라오스 루앙프루방으로 육로를 거쳐 넘어가는 일정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패키지여행 온 것도

5) 현재 중국이 메콩강 댐 건설을 12개 했고 향후 11개 댐을 더 건설할 예정이기에 메콩강 중하류에 있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물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6)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짐을 한 가득 싣고 있었고, 반면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비교적 간소한 차림이었다.

아닌데, 여행에서 무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진 않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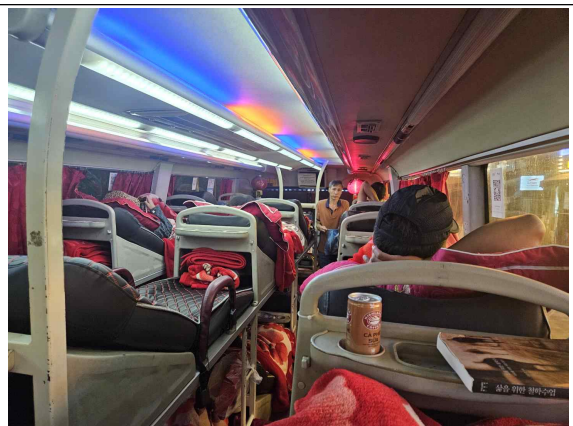
3. 고된 재미, 편안한 쉬 : 내가 추구하는 여행?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루트로 경험했던 여행자들은 전부 비추하였다. 사파에서 루앙프루방까지 28~3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는 점. 버스가 25인승 미니버스이기에 매우 불편하며 택 배상하차도 함께 하기에 가다 섰다를 반복한다는 점. 무엇보다 길이 비포장도로라는 이유에서였다. 여행이란 한정된 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고 갈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고생을 자처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며 갈 만한 방법은 아니란 것이었다. 그러나 혼자 왔기에 장시간의 버스 여행이 가능했고, 언급했듯이 여행에서 나름의 고됨이 없다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도해보자 싶었다.

사파에서 루앙프루방으로 가는 여행자는 드물었기에 표를 구하는 일조차 쉽진 않았다. 운 좋게도 판시판산을 같이 등정했던 가이드의 도움으로 버스를 예약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버스로 약 20여 시간 이동하는 동안, 왜 경험자들이 이 코스를 그토록 비추했는지 격하게(!) 공감했다.



왼쪽 큰 버스가 사파에서 베트남 국경도시로 났던 버스. 오른쪽 노란색 버스



3열 버스로서 불편하긴 했으나, 노란색 버스에 비하면 천국이었음



저 짐들을 내리고 싣고 반복하면서 비포장도로를 달렸음



미니버스를 약 6시간 탄 상태로써 반쯤 혼이 나감
~ 옆의 분이 한국 사람

우선 사파에서 베트남 국경 도시인 디엔비엔푸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부터 가로 2열이 아닌 3열 버스였기에 자리가 좁아서 불편했다. 하지만 이 버스는 디엔비엔푸에서 갈아탄, 블로거에서 확인한

25인승 노란색 미니버스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택배 물건을 한가득 실은 이 미니버스는 좌석을 개조했는지 좌석끼리의 폭이 무척 좁았다. 그리고 다리를 내려놓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무릎을 계속 구부린 채로 가야만 했기에 이 또한 매우 불편했다. 무엇보다 베트남 국경 도시인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남 국경사무소까지 도로 곳곳이 비포장이라서 가는 동안 힘들었는데, 라오스에 진입한 이후부터 도로는 아예 비포장도로였다.

사실 이런 사정은 이미 글로서 확인한 것이었고 나름 어려움을 견디는 고된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디엔비엔푸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한 노란색 미니버스를 3시간 30분 정도 타고 난 후 도착한 베트남 국경사무소에서 내 정신은 반쯤 혼이 나간 상태(!)였다. 택배상하차 버스라는 말을 했듯이 베트남 국경사무소 가기 전까지 버스는 마을 곳곳에 들리거나 사람들의 집을 기다리고 신는 것을 반복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인내심의 임계치가 이른 것은 베트남 국경사무소까지 가는 비포장도로에서의 운행이었다. 1시간 30분 가까이 덜컹덜컹거리는 길에서 불편한 의자에 앉아, 가다 섰다를 반복하고 나니, 현타가 온 것이었다. 이 버스를 10시간 정도 더 타고 (비포장 도로가 비로 인해 훼손되지 않고, 차가 고장 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루앙프루방에 저녁 7~8시 즈음에 도착한다는 생각을 하니, 내가 무슨 재미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싶었다.⁷⁾

고된 재미라는 나름의 기대를 안고 시도했던 사과에서 루앙프루방으로 가는 여정은, 이렇듯 고됨이란 감정에 포섭되어, 해프닝으로 끝났다. 여행은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휴식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편하기만 하면 밋밋하니 나름의 고됨이 있어야 재미있다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 부딪히면서 심적 분란(!)을 일으킨 장면이었다. 루앙프루방 입국 해프닝은 나로 하여금 여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 혹은 여행에 대해 내 인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지난날의 감동을 안고 이번에 재방문했던 베트남 사과에서의 트레킹이나 산행에서도 이 물음과 만났다.

4. 막연한 기대와 감동 : 여행에 대한 소박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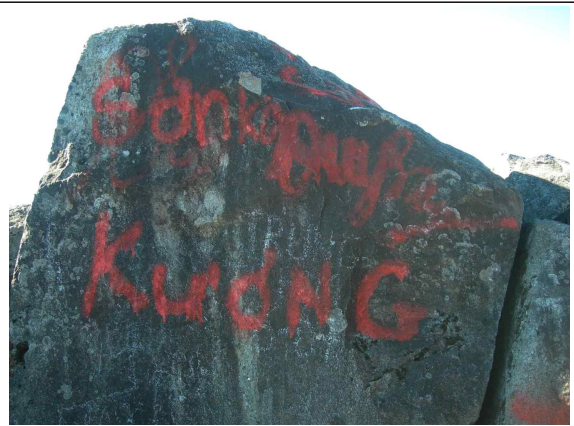
18년 전, 1박 2일로 등정했던 판시판산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부터 불을 피워 장작을 때워서 2,700미터 지점의 쉼터(대피소) 실내의 온기와 밝기를 밝혀야 했다. 첫 날, 쉼터까지 가는데 6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올라가는 길이 험하긴 했으나, 산등성이를 지날 때마다 펼쳐지는 판시판산의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전기가 없으니 불편했으나, 쉼터에 함께 머물렀던 외국인 커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어둠이 짙은 새벽을 가르며 2시간 등산 후 도착한 판시판 정상에서 우린 운 좋겠도 일출을 볼 수 있었다. 그 장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

7) 내가 얼마나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라오스 국경 사무소에 도착했을 당시 라오스 국경 사무소에서 루앙프루방까지 택시로 이동 가능한지 알아보기까지 했다. (물론, 불가능했다) 험난한(!) 여정의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인 한 분이 미니버스에 함께 탔는데, 이 분이 버스 경유지 중 우동자이라는 곳에 내려 루앙프루방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미니버스를 타고 가면서, 연결이 잘 되지도 않던 인터넷으로 루앙프루방 숙소의 주인에게 독으로 부탁하여 표를 구매했고, 우동자이에 오후 3시 정도 하차하여 기차를 탔다. 버스로 5~6시간 가야 할 길을, 1시간 만에 기차를 타고, 루앙프루방까지 갔다. 기차 좌석에 앉으면서 당시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큼 아름다웠다. 근데 일출만큼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다. 3,413미터의 정상에는 이곳이 정상임을 알리는 정상석이 없었다. 단지 정상 부근 어느 바위에 3,413미터라는 빨간색의 락카칠이 전부였다. 가이드 말로는 판시판산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간주하기에 인간의 흔적을 최대한 새기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18년 전, 판시판 정상을 알리는 유일한 표식



정상 옆에 써여 있던 문구인데 의미는 모름



하룻밤을 머물렀던 2,700미터의 베이스캠프



18년 전, 판시판 정상에서 바라본 산의 풍경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만난 판시판산의 정상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이럴 때 해당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우선, 판시판산의 약 3,200미터 지점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있었다. 심지어 3,413미터 정상까지도 모노레일이 깔려 있어서 거의 걷지 않고도 정상까지 갈 수 있었다. 정상 부근에는 많은 수의 베트남 국기와 곳곳에 정상임을 알리는 표지석을 세워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즐길 수 있도록 평평한 지면을 만들어놓기도 했다. 3,200미터 케이블카 도착 지점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에는 다양한 불상을 비롯하여 몇 개의 거대한 부처님상, 큰 절도 있었다. 케이블카 휴게점의 크기는 400~500여명이 사용해도 넉넉할 정도였고, 케이블카 한 대당 30여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갔던 날은 날씨가 흐렸는데도 사람이 제법 있었다. 그런데 가이드 말로는 지금은 우기라서 베트남 관광이 덜할 때이고, 성수기에는 케이블카 곤돌라에 30여 명이 매번 짹짹 차서 정상으로 올라와서 이 넓은 곳이 사람으로 가득 찬다고 설명해주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높다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영험하게 여기는 판시판산은 이제 못 사람들이 편히 와서 즐길 수 있는, 판

광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변화가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류의 정상 포지석이 곳곳에 있었고, 국기가 같이 꽂혀 있었음



정상 부근의 크나큰 부처상



3200미터 지점의 절인데 넓이나 크기가 무척 컸고, 곳곳에 들어가서 절할 수 있도록 했음



이런 류의 건물을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었음

나는 이번에도 판시판산을 등정했다. 판시판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고 20분이면 정상까지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고되고 비용도 더 비싼⁸⁾ 등산을 택한 것은 혼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오기 전부터 기대했던, 지난날 판시판산을 타면서 느꼈던 그런 충만한 느낌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번에는 아침 7시에 출발하여 낮 12시 30분에 정상에 도착했으니, 등산 시간 자체가 지난 번에 비해 약 3시간이 줄었다. 당일 저녁 7시에 라오스로 출발해야 하는 만큼 조금 서둘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일찍 도착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 없이, 그 때나 지금이나 경사가 가팔랐기에 길은 여전히 힘들었다. 산행하면서 마주한 판시판산의 매력은 지난날과 다르지 않았다. 오래된 나무들과 능선을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하늘의 풍경과 산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다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의 모습과 우리가 가는 동선 따라 이어진 전선을 보면서 18년 전, 내가 판시판산을 등정하면서 가졌던, 그런 경건한 비슷한 느낌은 생겨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미지

8) 판시판산 왕복 케이블카 비용은 평일은 80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45,000원 정도였다. 정상까지 이동 가능한 모노레일 비용인 15,000원을 더한다고 해도 60,000원이었다. 보통 노약자나 임산부 어린이 정도가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타는 듯했고, 대부분은 왕복 케이블카만 타고 정상까지는 걸어서 다녀오는 듯했다. 그런데 1박을 하지 않고 당일 산행 비용도 나의 경우 1인이었기에 110달러인 154,000원을 가이드에게 제공했으니, 비용 차이가 제법 났다.

의 숲을 헤쳐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느 산행과 다를 바 없는, 다만 좀 더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 느낌이 들었다.



이런 식의 콘도가 계단 눈이 보이는 산등성이 위 곳곳에서 공사 중이었음



나의 두 발이 되어준 오토방구와 공사 중이었던 마을길

이는 사파에서 트레킹 코스로 가장 유명한 깃깃 마을에서도 비슷하게 느낀 대목이었다. 깃깃 마을은 18년 전과 달리 입장료 20만동(1만원)을 내어야 트레킹이 가능했고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이 넓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마을 곳곳은 18년 전 내가 머물렀던 홈스테이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았고, 기념품 판매점도 마찬가지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레킹이란 무엇이든지 간에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사파 곳곳에는 여기저기 건물을 짓고 마을에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는 등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실제 이것이 사파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득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8년 전 경험으로 낭만적인 기대를 안고 찾아간 내 태도를 돌아보면, 여기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주관적이고 나이브한 모습이었다.

루앙프루방 입국 여정이나 사파에서의 경험은 여행에 대한 내 소박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런 소박함은 여행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의 장면에서 자주 발견된다. 다만 낯선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내 인식과 행위 방식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듯 싶었다. 여행(사람/일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 기대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기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는 타당한가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은 반복할 것이다. 마지막 꼭지로서 이번 여행에서 내가 본 현실에서 생겨난 물음에 대해 나를 정리하면서 여행 후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5. 런닝크루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행에서도 일상의 루틴을 지키고자 운동복을 챙겨갔다. 금요일 하노이에 도착했던 나는 지도를 보면서 달릴 만한 공간을 찾았고 숙소에서 약 1킬로 떨어진 곳에 호수가 주위에 펼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었다. 토요일 아침 6시 즈음 일어나 지도에 따라 길을 나섰는데, 토요일 이른 아침 시간 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식당들도 문을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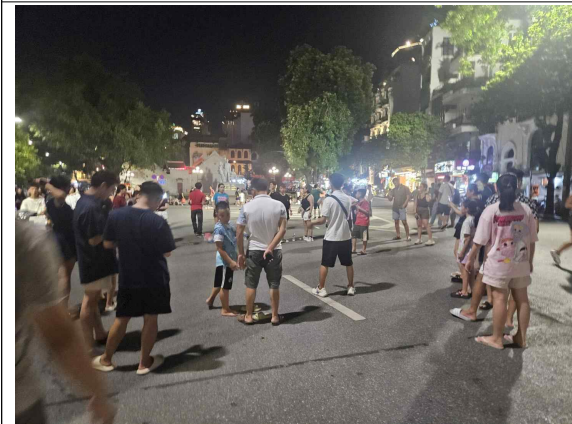
가게에서 아침밥을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런닝 크루들이 공원 호수가 주위를 달리는 모습.
크루의 종류가 다양했음



공원 호수가에서 춤추는 여성들



호안끼엠 호수 근처에서 늦은 밤 시간까지
가족들끼리 여흥을 즐기는 모습



하노이 성요셉 대성당에서 베트남인들이
참여하는 미사 시간

공원에 뛰어 나가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우선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규모가 큰 헬스장이 있었다.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니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규모별(적게는 3~4인, 많게는 20~30인)로 런닝크루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40~60대의 여성들이 선생님의 지시 아래 음악을 크게 쳐놓고 공원 곳곳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언제부터 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생활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들의 자유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문화적/종교적) 차원의 자유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듯 했다. 이는 하노이에 여행자 거리에 있던 호안끼엠 호수에서 관광객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놀고 있던 베트남인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공산당(VCP)의 일당 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차원의 자유(참정권)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베트남 공산당(VCP)은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의 승인을 부여하는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당 총비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베트남의 국방, 외교,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고 한다. 베트남은 국회, 국가 주석, 총리 등 여러 권력 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바, 국회는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를 감독한다지만, 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국가 주석은 국가의 상징적 수장이며 대외 정책을 책임지며,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사법부의 경

우, 인민법원, 군사재판소, 인민재판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판사와 대리인 모두 당 소속이다. 베트남 국민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일당 체제 이기에 공산당에 한해서만 투표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 권리의 한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오늘날 정부를 비판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의견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특히 베트남의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베트남의 탄압은 매우 가혹한 수준이다.⁹⁾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30여 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성장의 수혜자인 젊은 층은 개인적인 행복,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수의 베트남들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반체제 활동 단속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대부분 이용하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구글은 베트남 호치민에 구글사업소를 개설했다. 온라인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베트남 시장 확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요구사항을 직접 받아 이행할 필요성 때문에 베트남 요구에 따라 개설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 동안 반체제 관련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7,140개를 삭제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했고, 구글은 이 중 6,434개의 노출을 막아주기도 했다.

베트남의 런너들을 보면서 뻔어나간 상상력을 추스르자면, 이들의 개인적 (경제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정치적 참여/변화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그들의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기에, 이를 지켜봐야 할 듯싶다. 이와 관련하여 라오스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삶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었다.

루앙푸르방에 머물 때는 라오스의 경제적 현실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다. 내가 머물렀던 곳 자체가 여행/관광지 위주였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리 저렴하진 않았기 때문 아니었나 싶다. 그런데 루앙푸르방에 머물면서 라오스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본 후, 중국의 차관으로 만들었다는 기차를 타고 비엔티안으로 넘어가다 보니 라오스의 경제의 현실 상황이 눈에 좀 더 들어왔다. 비엔티안에서 내가 봤던 큰 건물들의 상당수는 중국 이름의 자본/기업의

9) “베트남, 反체제 인사 잇달아 중형... 공산당 독재 비판인사 잇달아 중형... 언론인·인권활동가 무차별 체포” (2022.01) 이거나, “베트남, SNS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화...’검열 강화’ 비판도” (2024.12)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독재를 비판하는 저술 활동으로 여러 번 해외에서 상을 받은 저명 여성 언론인 팜 도안 트랑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9년을 받았다. 이튿날에는 철거민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탄압을 소셜미디어 등에 폭로한 인권 활동가 트린 파 푸옹과 응우옌 티 탐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언론단체 ‘바오사치그룹’ 소속 기자 5명이 2년~4년 6개월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감자 대부분에게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117조 등이 적용됐다... 그리고, 베트남 북부 하단성 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인기 블로거 쩌티응아(41)에게 인권 침해와 일당 독재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의 명성을 훼손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최고 5000만동(약 23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는 베트남군이 1만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면서 SNS 여론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1만명이 넘는 규모의 사이버 사령부 ‘47부대’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것이었고, 메콩강변을 달리면서 강가에 큰 건물이 있길래 무엇인지 보니 중국노인들의 요양(병)원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비엔티안의 관광지로서 유명한 독립기념탑 앞에는 분수대와 광장을 지원했다는 중국 원조 안내 표지석이 있기도 했다. 루앙프루방으로 들어오는 기차도 그렇거니와 비엔티안으로 타고 갔던 기차도 중국 차관으로 건설되었는지라 이 빛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라오스의 경제적 예측화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였다.¹⁰⁾ 아닌 게 아니라 비엔티안도 그렇거니와 루앙프루방에서도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라오스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 선입견 때문이었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곳의 주인인 것 마냥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그들의 오만한 보고 있자니 무척 불편했다.



메콩강변에 위치한 중국노인들이 와서 휴양하는 요양원 같은 곳



중국 자본으로 설립한 비엔티안 기차역

이런 현실 속에서 평범한 라오스인(청년)들의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공장직 말고는 없다. 문제는 이런 업종으로 벌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라오스인(청년)들의 한 달의 급여를 살펴보니 공장 생산직이나 호텔리어, 종업원 등이 12~13만원, 택시 버스나 기사, 소방공무원 등이 약 20여만원, 교사가 12~15만원, (안마 등) 서비스업은 18~23만원, 대졸 초봉은 약 28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비엔티안에서 내가 거주한 공간이나 먹었던 음식, 교통 등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급여로는 생활이 무척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라오스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1회 당 3~5만원 전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번 돈으로는 생활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현재의 힘들음을 마약 복용 등으로 해결한다는 내용들도 적지 않았다.

10) 중국-라오스 기차(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로서 라오스와 중국 모두 원-원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라오스의 경제를 중국 경제에 예측화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철도 건설, 운영에 있어 중국이 70%의 자금을 투자하고, 라오스는 30%(이마저도 중국으로부터의 차입)만 부담해 실질적 통제권을 중국이 갖고 있다. 게다가 라오스는 철도 건설로 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중국에게 짊어졌고, 중국에 대한 무역·금융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라오스의 공공부채 중 약 47%가 중국 공적 차관이다) 그로 인해 라오스의 재정적 부담과 중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 주권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철도 개통 전후 라오스 집화 가치 하락, GDP 감소, 1인당 소득 하락, 물가상승(22년 31%, 23년 25%, 25년 8월 기준 8%)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철도 개통 및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 등으로 중국과의 무역·관광이 급증하여 2024년 양국 무역은 71억 달러(24년 라오스 총 무역금액은 221.3억 달러로서 약 37% 차지)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고, 관광수입도 늘어났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신규 투자 제한 등 자구책을 시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무용하다는 평가이며 갈수록 예측화가 심화될리라고 예측한다. 라오스의 국가채무는 130억달러로서 GDP 대비 108%에 달하며, 매년 13억 달러를 중국에 채무 상환 부담을 해야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하하는 ‘중국 일대일로 철도’ 와 고통에 빠진 라오스”, [한겨레] 홍명교의 이상동몽, 2021.12.11, “中·라오스 1035km 잇는 고속철 개통 “중국 자본·기술로 식민지화 우려”, 中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 조선일보, 2023.12.11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 권력, 라오스 인민혁명당(LPRP)은 정치권력을 독점 하면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라오스는 128위로 동남아 국가중에서 하위권에 속한 상황이다. 정치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인민들은 현재의 생존에 급급하고, 이런 현실을 이용하여 독점적인 정치권력은 본인들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악순환의 반복.¹¹⁾ 안타깝게도 라오스 정치 체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는 지식인이나 시민사회단체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인민혁명당이 지배하는 단일당 체제로서 정치적 비판 자체를 억압하는 현실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식인/사회 세력의 부재의 현실인 듯 싶었다.

이런 라오스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내가 라오스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이거나 사회운동가라면 혹은 공산당 지도부의 일원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게 했다. 국가의 권력을 누가 지배하고 행사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떤 식으로 꺾어지는가를 보고 있자니, 얼마 전 윤석열이 저지른 계엄령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절로 생겨나기도 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베트남 청년들은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통한 개인의 사적 행복 추구로 인해 정치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면, 라오스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의 현실에 급급하여 정치적 시선으로 확장이 여의치 않다는 내 생각이 얼마나 타당한지 잘 모르겠다. 며칠 동안 머물렀던 내가 보거나 생각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어떤 계기에 의해 베트남이나 라오스의 정치 체제가 변동이 생겨날지 모르는 일이다.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War and Peace in Korea’ 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내용이 실린 적이 있다. 그 만큼 외신의 관점에서는 당시 한국이란 나라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보였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라오스 역시도 긴 역사적 시선으로 볼 때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공산당의 일당 체제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이 곧 국민들의 삶이 개선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울듯하다.¹²⁾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산주의이든 민주주의이든 간에 국가 구성원이 어떤 나라를 추구/지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¹³⁾

11) 빈부격차와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팔의 Z 세대의 청년봉기와 2024년 반퀴터제 봉기가 발생했던 방글라데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네팔의 경우, 직접 개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미국이 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권력의 무능과 억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라오스와는 차이는 네팔의 경우 수십 년간 반왕정투쟁 끝에 2008년 네팔 민주주의의 수립을 이루어내었다는 점이다. 라오스와의 공통점은 네팔의 세 주요 정당이 권력 유지/찬탈에만 골몰했고, 라오스는 공산당만 있었고, 두 국가 모두 서민들의 삶은 무관심했던 것이다.

12) 15여 년 전 방문했던 지금의 시리아가 떠올라서이다. 당시 시리아는 바사르 알 아사드 2세가 정권을 이어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2011년 아랍의 봄 영향(외에도 경제적 어려움, 종교적 민족적 갈등, 외부 세력 개입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으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시리아는 내전 상황이 벌어졌고, 13년 동안 내전으로 무려 16백만 여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사상자만 해도 130만 여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사드 정권의 독재 체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는 아니었지만, 당시 시리아를 여행했던 나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보였다. 그러나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국토 곳곳이 전쟁터가 되었다. 독재자는 쫓겨났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고, 시리아 국민들의 생활 터전은 무수히 파괴되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공산당 일당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려서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과연 선(善)인가 하는 물음이 생겨난다.

13)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하여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6. 나가면서

일상도 그렇지만 여행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요긴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네 가지 장면/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하노이 도착한 첫날 환전을 위해 여행자 거리를 갔었는데, 슬립백의 주머니가 열려 있었던 터라 여권과 현금 지갑을 고스란히 잃어버릴 뻔했다. 지나가던 한국 중년 남성 한 분이 내게 주머니가 열려 있는 것을 알려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는 너무 황망했던 나머지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 분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번 여행은 상당히 고난으로 점철되었을 법하다.

두 번째는 롱비엔 철교에서 오토바이로 나를 태워준 베트남 청년이다. 하노이 둘째 날, 역사 공간 위주로 하노이문묘, 호치민박물관, 탕롱황성 등을 걸어나다가 롱비엔철교¹⁴⁾까지 가게 되었다. 롱비엔 철교가 오래되었다 보니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다.¹⁵⁾ 결국 조금 건다가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전지대 비슷한 공간으로 빠져서 다시 되돌아가기로 했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그때, 안전지대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려는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에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좀 태워달라고 온갖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니 이를 찰떡같이(!) 알아먹고, 태워주었다. 다리를 건너 후, 돌아가는 길의 상태는 보수를 잘 해놓은 터라 걷기에 괜찮았다. 그리고 그 때 기차도 지나가고 해가 지는 시점이었는지라,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 장면을 내 눈에 새길 수 있었다. 청년의 호의가 아니었다면 아름다운 장면을 놓칠 뻔했다.

세 번째는 라오스 루앙프루방에서 아침 달리를 할 때, 배탈이 났던 상황이었다. 5킬로 정도 뛰고 나니 갑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신호가 왔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난감했다. 가진 돈은 한 푼도 없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길가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 가게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눈짓, 몸짓, 손짓으로 간절함을 표현했으나, 이해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장님이 이를 금세 알아듣고 청년에게 뭐라뭐라 그러더니, 화장실로 안내해주었다. 돈이라도 있었다면 감사함을 표했을 터인데 아무것도 없었던지라 코리아 라고 몇 번 말하면서 그저 감사하다고 고개만 몇 번 조아리고 나왔다.

마지막 네 번째는 베트남 사파에서 루앙프루방으로 넘어가던 미니버스에서 만났던 한국 노인 여행가였다. (아마도 공무원으로) 퇴직했던 그는 동남아시아 여행을 주로 다녔던지라 라오스도 몇 번이나 방문했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이처럼 본인 혼자 곳곳을 다니는 것을 즐겨했다. 때문에 사파에서 라오스 루앙프루방까지 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분은 기차 타는 방법을 내게 다각도로 알려주었고, 그분 덕에 루앙프루방으로 갈 때는 편히 갈 수 있었다.

14) 롱비엔철교는 약 1,680미터 거리의 철교로서 에펠탑을 디자인한 에펠이 디자인했다는 설이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고 한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건설한 이후, 미국과의 전쟁에서 반복적인 폭격을 받은 후 무너졌으나 이를 재건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까지도 보행 가능했으나, 현재 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다. 지금은 석양의 포토존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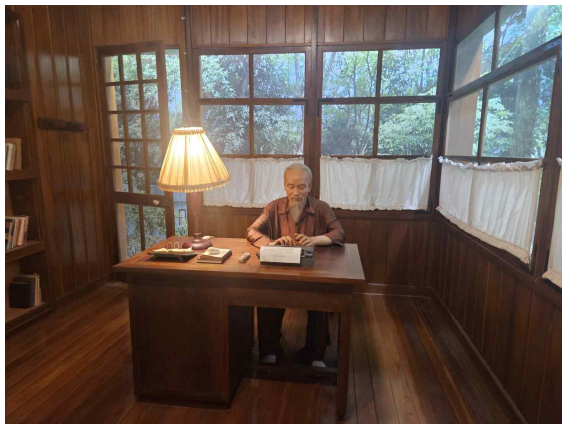
15) 철교 나무 발판이 오래되어서 들성들성 훼손되어 있었고, 나무 발판 사이로 홍강이 보였다. 게다가 손잡이 난간은 오래되어 빠져서 걸렸던지라 무척 겁이 났다. 바로 옆에는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계속해서 쉿쉿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 차리기 어려웠다.



루앙프루방에서 만난 동자승들. 사진 찍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었음.



오토바이 청년 덕에 구경하게 된 룡비엔철교에서 바라본 하노이의 석양



호치민 박물관에서,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호치민 선생



루앙프루방 어린이문화센터에서 나를 위해 연주하던 소녀

이분들 외에도 소소한 신세를 지기도 했던 바, 여행이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경험임을 새삼 확인하기도 했다. 사실 해외여행에서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언어. 편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관광은 정해진 코스와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있고 그 질서에 맞춰 따라가는 한, 불편하거나 고된 일이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관광하는 동안에도 익숙한 세계는 아니기에 불편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나, 대체로 사소한 해프닝 정도이다.

그럼에도 관광이 아닌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에서는 알기 어려운, 낯선 공간에서의 나의 태도와 행위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재미와 또한 세계를 좀 더 알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본문에서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 내가 세계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경험들이 없진 않았다. 단지 세계와의 만남에서 다른 것에만 주목했다면, 알지 못했을 내용들이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현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바도 나를 유익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진 않다. 다만 이후 이들 국가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글의 서두에 언급했던 약간의 아쉬움을 말하자면, 베트남을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호치민 선생의 자서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준비 없이 방문했던, 나의 태도이다. 준비 없이 가 놓고, 준비 없었다고 타박하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나, 그래도

제법 긴 시간과 노력, 돈을 들였는데도 베트남에 대한 이해가 그리 두터워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런 여행 후기를 쓸 수 있는, 이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준 파랑샘기금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로선 베트남과 라오스 국민들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이번 여행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다만 파랑샘 기금의 취지인 <멈추어 숨고르기>와 관련하여, 이를 내가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여행 신청 동기에서 올해까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만큼 여행 기간 동안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를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내 삶의 행로를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후 결정하는 과정에서 <멈추어 숨고르기>의 경험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는 말로, 긴 여행 후기를 마무리한다.

하반기 공모사업 ‘폭삭 속았수다!’

부산인권플랫폼

부산인권플랫폼

부산양산지역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파랑샘기금> 공모사업2

인권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폭삭 속았수다!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에서 부산지역 인권활동가들의 삶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파랑샘기금>의 2025 두번째 공모사업 ‘폭삭 속았수다!’를 진행합니다.

제주의 바람과 햇살 속에서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섬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자연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여행을 떠나보아요!

대상

인권단체 활동 경력 5년 이상 활동가팀(3인) / 현재 재직자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자

일정

1차팀 2025년 8월 21일(목)~23일(토) 2박 3일

2차팀 2025년 9월 11일(목)~13일(토) 2박 3일 혹은 9월 18일(목)~20일(토) 2박 3일

프로그램

1일

멈추어 숨고르기

09:00 부산 출발

10:00 제주 도착

12:00 김녕 도착 및 점심식사

13:00 체크인 및 오리엔테이션

14:00~22:00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저녁식사

- 바닷가 산책 및 자유시간

- 굿나잇 상임불 사워

- 취침

2일

자연과 만나다

오전

- 굿모닝 바다 여성 & 명상(동트는 시간)

- 비자림 맨발걷기 or 묘산봉 트래킹

12:00 점심식사

13:00~18:00 자유시간

(섬, 바다수영, 마을산책, 내일굴 마그네틱 만들기 등 선택)

18:00 저녁식사 및 뒷풀이

22:00 취침

3일

몸과 마음을 잇다

오전

- 자유롭게 선택

12:00 점심식사

14:00 김녕 출발

16:00 제주 출발

지원

항공료 + 숙박 + 프로그램 포함 지원 (1인당 55~60만원)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5년 6월 30일(월) ~ 7월 6일(일) 자정

② 제출서류

i) 신청서 (팀 및 참가자의 자기소개서)

ii) 기관(단체)장의 추천서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세요 (<http://parang.or.kr/2025폭삭속았수다>)

이메일 접수 (rights.parang@gmail.com)

7월 14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7월 중 선정팀 오리엔테이션 예정

051) 710-7125 <파랑샘기금> 담당자

신청서 제출 후 2일 이내 접수 확인 연락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확인 연락 부탁드립니다.

접수

결과

문의

하반기 공모사업 참여자 (인권활동 경력 5년 이상 3인 구성팀 신청 / 2팀 선정)

순차	참여자	기간	프로그램	지원
1차팀	숨·쉽·살림 위애선, 정희정, 정아름 3명	8.21~23 2박 3일	1. 멈추어 숨고르기 2. 자연과 만나다 3. 몸과 마음을 잇다	항공료 식비 숙박비 프로그램비
2차팀	양산휴식연대 이보은, 이은아, 이효나 3명	9.11~13 2박 3일		

‘폭삭 속았수다!’ 1차팀 <숨·쉽·살림> 보고서

소 속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참여팀명	숨·쉽·살림	참여자	위애선, 정희정, 정아름
사업명	부산양산지역 인권활동가 재충전프로그램 <파랑샘기금> 공모사업 ‘폭삭 속았수다!’		
일시	2025년 8월 21일(목)~8월 23일(토) 09:00~18:00		
사업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장소	제주 힐링스테이 ‘달에 물들다’

참여자 평가

1. 활동가 위애선

1.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김녕 마을 해수욕장과 지질 트레일 코스를 따라 걸었던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청굴물’이라는 독특한 바닷가 샘을 만났던 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동그란 천연 수영장은 마치 바닷속 비밀 장소 같았고, 한여름에도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은 몸과 마음을 모두 맑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투명한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마치 제가 물고기가 되어 그들과 함께 노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마을’이라는 이름 그대로, 김녕은 제게 쉽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특별한 휴양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와 활동의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온전히 연결되는 이 경험은 제 자신에게 주는 위안과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2. ‘쉽’과 ‘재충전’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떤 쉽을 느끼셨나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거나 재충전하셨는지 자유롭게)

- 수지애니머그램이나 싱잉볼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심리적인 긴장감은 서서히 풀어졌고, 마음에는 잔잔한 이완과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바다에서의 물놀이와 산책을 통해 평소 잘 쓰지 않던 신체를 움직이면서, 팔과 다리에는 기분 좋은 통증과 함께 몸은 피곤했지만, 그 피곤함마저 편안하게 느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균형 있는 쉽을 경험했고, 덕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 밤, 호스트 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면서 활동가로서 내가 해온 일들에 대한 자존감과 긍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되새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 놓을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3. 공간, 숙박, 식사, 교통 등 기본 환경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세요. (편안했나요?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 쉽고 회복을 위해 공간이나 환경적으로 중요했던 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8월 성수기에 제주항공 비행기 표를 예매하다 보니 시간과 날짜가 촉박했고, 표도 빠르게 매진되어 동료 활동가들이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각자 따로 움직여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성수기라 다소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서 김녕마을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 전반적인 교통편은 편리했습니다. 다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자칫 놓치게 되면 공항이나 숙소 도착이 늦어질 수 있어,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과 오는 날에는 부득이하게 이른 시간에 움직여야 했고, 이 점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 숙소는 1인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독립적인 공간 덕분에 쉽고 회복의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고, 공용 휴게실에도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 식사의 경우, 저녁 시간에는 문을 닫은 식당이 많아 식당을 찾아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식당을 찾고, 처음 가보는 곳에서 식사하며 맛집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 제주의 조용한 마을 분위기와 동료들과의 소소한 탐방은 마치 진짜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완벽하지 않은 환경이 오히려 여행의 묘미와 소중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다면 느낄 수 없었을 경험들이었기에, 이번 여정이 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4. 프로그램 구성이나 활동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활동이 인상 깊었고, 어떤 활동이 아쉬웠나요? (활동의 흐름, 진행자의 역할, 자율성과 강제성 등에서 느낀 점)

1)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 방식

- 첫날, 호스트 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일정을 직접 구성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한마디가 큰 심리적 자유감을 주었습니다.
- 각자의 리듬과 컨디션을 존중하며, 활동이 아니라 '쉽' 자체를 중심에 둔 구성 방식은 진정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2) 활동의 흐름

- 전체 일정은 흐름이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몰입이 필요할 땐 집중할 수 있었고, 힘들 땐 쉬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였다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활동이 조율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나 다른 참여자와 어울림을 즐길 수 있는 균형 잡힌 흐름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3) 진행자의 역할

- 진행자분들은 단순히 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참여자 개개인이 스스로를 더 잘 느끼고 돌아볼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섬세하게 유도해주셨습니다. 특히 몰입이 깊어져 지칠 수 있는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셔서, 쉽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수지에너지그램 활동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집중도 높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규모(3인) 그룹 내에서 진행되어 나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의미 있는 내면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4) 자율성과 강제성

-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율성'이었습니다. 활동 참여 여부, 일정 구성, 휴식 시간 등 모든 부분에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았고, 그로 인해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여행자로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느꼈던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달리,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쉬게 해주었습니다.
- 싱잉볼을 통해 자연과 연결되고 긴장이 풀리는 경험을 하면서 수면장애가 있던 제가 그날은 꿈도 꾸지 않고 단잠을 잔 것은 그 자체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5. 프로그램 이후, 현재 느끼는 변화나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남은 것, 혹은 다시 활동할 힘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1) 그동안 직장인, 활동가, 상담원, 가정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제대로 된 쉼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짧지만 소중한 2박 3일간, 일상의 무게와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치유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2)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 처음에는 밀려 있던 업무로 인해 다시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적응 기간 동안은 '다시 제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며 한숨 돌리는 여유를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나에게 남은 것, 혹은 다시 활동할 힘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 제주의 시간은 제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해온 일에 대한 자긍심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나다운 힘'으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쉼의 시간이 단지 휴식이 아닌, 제 안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6.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다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활동이나 구성 요소는?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나요?

1) 일정 연장

- 제주도 2박 3일 일정이 너무 짧아서 원하는 활동들을 충분히 못 즐긴 점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첫날과 마지막 날이 이동으로 소요되니,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던 게 아쉬움을 키운 듯합니다. 2박 3일보다는 3박 4일 이상으로 늘려서 일정에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놀이뿐만 아니라 김녕굴, 비자림 숲, 해녀 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을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활동 구성 조정

- 첫날 제주도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심신적으로 다소 피로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첫날 진행된 4시간짜리 긴 수지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 배치해 참가자들의 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이라면 다음날 구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첫날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보다 가볍고 편안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심신 완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첫날의 피로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7.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자유롭게 일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도, 설마 완전히 참여자 의견에 따라 계획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분들께서 저희 활동가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반영해 주시고,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편안한 숙소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 특히 호스트분들과의 친분은 새로운 인연이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음껏 즐기고 휴식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 바다 위 서핑보드에 누워 제주 하늘과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온전히 나를 느꼈던 그날의 추억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그때 충전한 힘이 활동가로서 저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런 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해 힘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2. 활동가 정희정

1.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제주도라는 공간이 일터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장소인 덕분에 업무에서 벗어난 기분을 최대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을 하면서 하늘, 바람, 바닷물,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2. '쉽'과 '재충전'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떤 쉬음을 느끼셨나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거나 재충전하셨는지 자유롭게)
 - 바닷물에만 안 들어갔을 뿐 평소에도 늘 보고 느끼던 하늘이고 바람인데 마치 처음으로 그것을 겪은 듯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나의 몸이, 나의 존재가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Being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체험했다고 할까요?
3. 공간, 숙박, 식사, 교통 등 기본 환경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세요. (편안했나요?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_ 쉬과 회복을 위해 공간이나 환경적으로 중요했던 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불편한 점은 없었고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에 진심이 느껴져서 헤어질 때는 울었습니다. 싱잉볼 시간 잊지 못할 거예요. 편안하게 알콩달콩 웃음꽃이 피었던 그때 그 자리...(눈물이 나네요) 연결님! 싱잉볼 없었으면 우리가 가져간 겁니다. 하하하

4. 프로그램 구성이나 활동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활동이 인상 깊었고, 어떤 활동이 아쉬웠나요? (활동의 흐름, 진행자의 역할, 자율성과 강제성 등에서 느낀 점)

- 해수욕이 제일 좋았고 아쉬웠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강제성은 못 느껴보았어요. 진행자들이 적당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해 주셨으니까요.

수지에니어그램은 처음이 아니었기에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고 거의 새롭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는 기억력이 나쁜 것이 장점일지도^^;) 강사님이 다른 분이 고, 두 번째라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호스트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뒤틀이 마치고 동료들과 수다 떨면서 평소 일에 치이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었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5. 프로그램 이후, 현재 느끼는 변화나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남은 것, 혹은 다시 활동할 힘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 생기있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집순이인데 여행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자의로 여행을 떠난다면 이 프로그램 덕분일 것입니다.

6.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다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활동이나 구성 요소는?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나요?

-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정말 없습니다.

7.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바쁘는데 이런 거 하라 하나 하며 이 파일을 열었지만 쓰고 보니 제가 느낀 기쁨과 감사를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최고!!!

3. 활동가 정아름

1.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특별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처음에는 제주도까지 가는게 너무 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비행기를 타고 떠나니 진짜로 업무에서 제대로 벗어난 것 같아서 진짜 진짜 쉽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쉽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비행기도, 밥도 다른 것 전부 자유롭게 알아서 결정해라는 방식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2. '쉽'과 '재충전'의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심리적·신체적으로 어떤 쉬음을 느끼셨나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거나 재충전하셨는지 자유롭게)

- 원래라면 업무를 하는 시간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벗어나 제주도라는 도시로 떠나오니 업무에서 정말 멀어지는 것 같아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평소와 다르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

아서 짜릿함도 느껴졌습니다! 낯선 공간이 주는 심리적 긴장감과 해방감! 회사가 공식적으로 허용해준 쉬는 업무!! 남들이 일할때 쉬는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3. 공간, 숙박, 식사, 교통 등 기본 환경에 대한 느낌을 알려주세요. (편안했나요? 불편했던 점은 없었나요?)_ 쉬과 회복을 위해 공간이나 환경적으로 중요했던 점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 제주도가 대중교통이 잘 안되어 있다보니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호스트 분들이 숙소를 깨끗하고 아늑하게 준비해주셔서 여독이 다 풀렸고 주위에 맛집도 많아서 좋았어요. 특히 호스트분들이 주위 맛집, 카페 등을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숙소가 독립된 공간으로 1인실로 나만의 공간을 가진 것 같아 넘 좋았어요! 일과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오롯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4. 프로그램 구성이나 활동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활동이 인상 깊었고, 어떤 활동이 아쉬웠나요? (활동의 흐름, 진행자의 역할, 자율성과 강제성 등에서 느낀 점)

-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호스트분들이 저희가 부담스럽거나 피곤하지 않게 적절하게 시간과 일정을 조율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오롯이 저희가 프로그램 주체가 되어 모든 일정을 짤수 있게 자유를 주어 프로그램 일정대로 하지 않았도 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없어 너무 좋았습니다. 수지애니어그램은 본인의 색깔 말고도 동료들의 색깔 설명, 조화에 대한 내용 등등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재미있고 유익하며 동료들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또 바다수영과 패들보트를 처음 타봤는데 제가 수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날이 좋아 바다수영 하는 내내 붕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쉬운건 2박 3일이라 더 제주도에 있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2박 3일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개인적으로 남아서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고 여행의 끝나는 시간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5. 프로그램 이후, 현재 느끼는 변화나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나에게 남은 것, 혹은 다시 활동할 힘이 생겼다고 느끼시나요?

- 참엔 바다수영이 무서울 것 같아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바다수영을 하면서 물결에 몸을 맡기며 둥둥 떠다녔던 순간이 너무 좋고 굉장히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다수영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미리 선입견 갖지 말고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용기가 생긴거 같아요. 또 수지애니어그램을 통해 동료들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좀 더 가까워진것 같고, 호스트와의 뒷풀이를 통해 각자의 경험을 진솔하게 대화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일상으로 돌아와 힘들 때마다 제주도의 자유롭던 시간들을 떠올리면 애뜻하고 소중한 느낌이 나서 미소짓게 됩니다.

6.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다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활동이나 구성 요소는?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

나요?

- 3박 4일이면 좋겠어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았지만 하루 정도 혼자 온전히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김녕 주위를 걸어보며 제주도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들이 하루정도 있으면 합니다!

7.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체에서 일을 하지만 외로움과 업무에 지친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번기회를 통해 자신을 살피고 동료와 고충을 나누며 에너지를 얻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배려해준 저희 단체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전체 평가

1.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인상 깊은 순간

- 1) 김녕 마을 해수욕장과 지질트레일, 특히 ‘청굴물’ 바닷가 샘과 바다수영, 패들보트 등 자연 체험 활동이 매우 특별하고 인상 깊은 경험으로 꼽혔습니다.
- 2)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일정 구성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자유가 참가자들의 깊은 휴식과 몰입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3) 싱잉볼과 수지에너지그램 등 내면 성찰 및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개인의 심리적 긴장 완화와 동료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 ‘쉽’ 과 ‘재충전’ 의 효과

- 1) 심리적 측면에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자존감과 자아 인식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2) 신체적으로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몸을 움직이면서 피곤함마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온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3) 특히 제주 바다와 자연에서 경험과 ‘자유로움’은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졌으며 활동 의욕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공간, 숙박, 식사, 교통 환경 평가

- 1) 1인실 독립공간 제공은 개인의 휴식과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공용 공간과 편의 시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 2) 식사와 관련해 저녁 시간 문 닫는 식당이 많아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오히려 동료들과의 소소한 탐방과 새로운 맛집 발견의 즐거움이 더해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3) 교통편은 제주공항에서 숙소까지 버스가 편리했으나, 배차 간격과 성수기 항공권 예약 어려움으로 인한 이동 시간과 피로가 부담이 되었다는 점이 개선 필요로 지적되었습니다.

4.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방식

- 1) 전체적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강제성이 없고 개인별 리듬을 존중하는 진행 방식이 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2) 수지에니어그램과 싱잉볼 활동은 심리적 몰입과 동료 간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행자의 세심한 배려가 좋았다는 평가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 3) 전반적으로 활동가들이 스스로 일정과 참여를 선택하는 방식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5. 프로그램 이후 변화 및 효과

- 1)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균형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활동 재도전의 의지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 2)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제주도에서의 자유롭고 편안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정서적 안정과 동기 부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3)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자발적 여행과 휴식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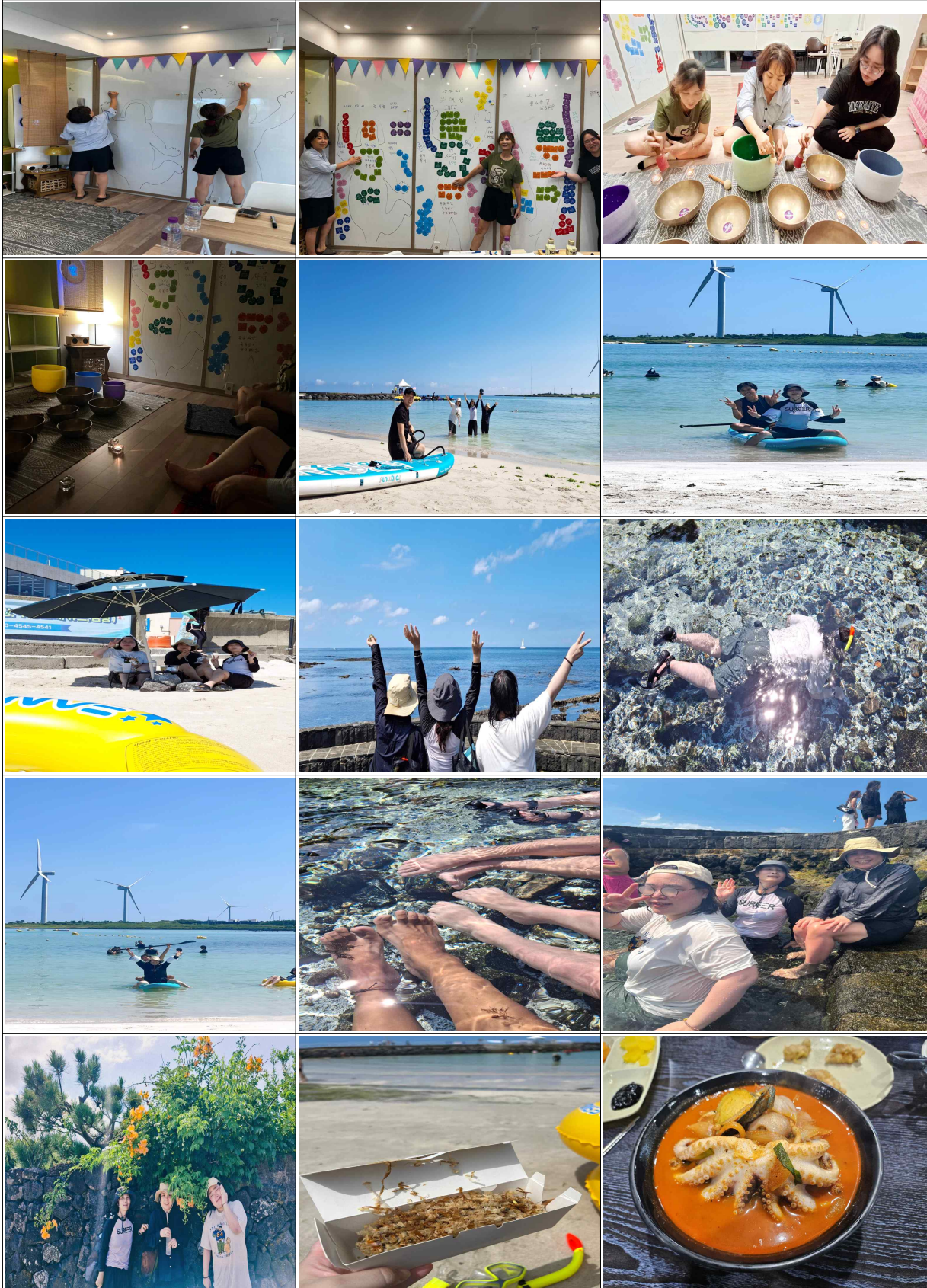
6. 개선점 및 향후 바람

- 1)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지만, 2박 3일 일정이 다소 빠빠해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체험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아 3박 4일 이상으로 일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부족하여 3박 4일 중에 하루 정도는 혼자만의 사색 시간을 위한 개인 자유시간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2) 첫날 장시간 이동과 집중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로 완화를 위해 세션 분할이나 일정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3) 교통편 개선과 성수기 항공권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개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7. 종합 소감

- 1) 제주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상과 업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간과 활동, 그리고 진행 방식 모두 자율성과 편안함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지에니어그램과 싱잉볼 같은 내면 성찰 활동은 지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정이 조금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호스트분들의 배려와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신체적으로도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동료들과의 유대도 더욱 깊어진 것 같아 앞으로 활동가로서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 덕분에 일상에 돌아가서도 마음의 에너지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참여자 모두 제주도의 자연 속에서 업무와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오롯이 누릴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활동 사진





‘폭삭 속았수다!’ 2차팀 <양산 휴식 연대> 보고서

- 참가팀명 : 양산 휴식 연대
- 참가자 : 이보은, 이은아, 이효나
- 기간 : 2025년 9월 11일(목)~13일(토)
-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3일차>
09:00 부산 출발 10:00 제주 도착 12:00 김녕 도착 - 넓은 연결님 인사 및 안내 - 점심식사(황금콩밭) 13:00 체크인 및 오리엔테이션 14:00~22:00 - 수지에니어그램 - 저녁식사(김녕식당) - 자유시간 - 굿나잇 싱잉볼 샤워 - 취침	오전 - 아침식사(with 넓은+연결) - 비자림 맨발걷기 12:00 점심식사 (칠분외오 채식식당) 13:00~18:00 자유시간 - 쉼, 카페, 개인시간 18:00 저녁식사 및 뒷풀이 (with 넓은+연결 / 모듬회) 22:00 취침	오전 바닷가 걷기 12:00 우리두리 14:00 김녕 출발 16:00 제주 출발

- 지원금 : 항공료 + 숙박비 + 프로그램비 (1인 55~60만원 지원)
- <폭삭 속았수다> 프로그램 평가

N	분류	좋았던 점	부족·불편·개선할 점
0	신청 및 선정	휴식에 소극적인 활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점	
1	일정	상반기에 쌓인 피로를 풀고 회복하기 적당한 시기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기가 만만치 않지만 2박 3일이 다소 짧게 느껴졌음. 현실적으로 3박 4일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함.
2	교통편	많은 관광객으로 버스가 혼잡하였으나	공항에서 타서 앓을 수 있었음.
3	숙소	1인실- 방안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철저한 휴식 공간	
4	음식	음식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식당을 미리 안내해 줌	
5	프로그램	나와 동지를 이해하기 좋은 애니어	

		그램, 멍때려도 좋은 싱잉볼, 넓은 연결님과 식사 다 괜찮았음.	
6	기타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찾기가 힘들. 참가자들에게 확인하니 이은아님이 개인 소감에 무언가를 살짝 언급했다고 하심.

■ 사진들





양산 휴식 연대

이보은, (사)양산노동인권연대 상담활동가

1. 자본주의 일상의 속도

일상의 속도는 통제가 잘 안된다.

신호위반과 과속의 연속이다.

해야 할 일, 아직 다 못한 일, 새로운 상황들이 규칙과 질서 없이 생성된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급급해 하며 살고 있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건지 하루 하루가 점점 더 짧아진다!

달리는 버스에 앉은 승객처럼 속도에 대한 감각이 없다가도 가끔 급정거할 때의 엄청난 반동에 의해 그 속도를 가늠하게된다

최근에 뛰다가 넘어져 큰 부상을 당했었다.

우사인볼트만큼 뛰었다가 그 속도만큼 떨어졌다.

내가 얼마나 뛰고 있었는가는 어푸러지고 부딪혀봐야 안다.

그 속도에서 잠시 비켜날 수 있게 해 준 분들이 ‘파랑’이다.

2. 기대는 파랑을 일으킨다.

‘파랑’의 제안으로 제주도 여행이 확정된 이후 피로감이 확 밀려왔다.

이번에 안 쉬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계획되고 확정된 ‘쉽’이 막걸리병을 흔든 것이다.

가라앉혀 놓았던 고단함이 밀봉된 뚜껑을 뚫고 나왔다.

자유시간이 있는 일정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밀린 일감을 챙겨갔다.

다녀와서 밤새지 않기 위한 나에 대한 작은 배려이다.

낮 시간에 잠시나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행복했다. 동행한 동지들에게 양해를 구해 3일 중 하루의 휴식 시간은 혼자 있기로 했다.

3. 온종일 우리를 살피고 배려하는 ‘넓은 연결’

활동으로 연결된 동지 3명이 함께 여행을 왔다는 게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서로 얼굴만 보면 현안 이야기하기 급급해지는 이 조합으로 쉬러 왔다니~

넓은+연결님의 환대를 받았다.

낮선 곳에서 만나는 생면부지의 다정한 가족은 그들의 일상에 우리를 가득 담아 분주히 움직였다.
넓고 다정한 연결의 안내에 기대어 지내는 2박 3일은 잠시 꿈을 꾸고 일어난 것 같았다.

비가 그친 후 숲길을 걸었다.

꾸룩꾸룩 대는 뗏목소리 소리, 맨발에 닿는 흙과 나뭇잎과 돌 알갱이들은 온몸의 감각을 일깨웠다.
나를 이루고 있는 내 안의 모든 것들, 내가 알아채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숲의 날 것들
과 공명하는 것 같았다.

아이고 발바닥이야

할 때 즈음 슬리퍼를 신었다.

다음날 까지 발바닥으로부터 올라왔던 갖가지 묘한 감각들이 살아있었다.

4. 나는 요런 모양이구나

수지에니어그램으로 자신의 본질을 가늠해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았다.

타고난 건지 만들어진 건지는 몰라도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지에니어그램은 5번.

에니어그램 좀 안다는 지인은 내가 5번 일리 없다는 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나올란지 ~

3번과 8번의 동지들을 보며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저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저마다의 본연은 어디로
부터 나오는 건지~ 타고난 것인가 양육환경, 성장과정에 따른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자신과 타
인을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저마다 ‘것’ 이 만나는 것이리
라 그리고 그 ‘것’ 을 서로 감당하는 것이겠거니~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온갖 잡념이 사진과 동영상의 형태로 떠다닌다.

탕~아~아~앙

탕~애앵~~~

웅~웅~웅

소리가 근본 없는 잡것들을 소멸시킨다. 오~우 실로 놀라운 소리 명상이었다.

육지에 와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유튜브로 싱잉볼 소리를 들었다. 가격을 검색하다 그냥
유튜브로 듣기로 했다.

5. 텃줄은 발바닥에 있었다.

제주의 바닷물에 발을 담그니 눈물이 차올랐다. 그 맑고 차가움이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그 텃줄의 기억을 회복시켰다. 텃줄은 배꼽이 아니라 발바닥에 있었나보다. 숲길에서 바다에서 맨
발이 기억해냈다.

6. 그리움에 대한 그리움

헤어지기도 전에 그리움이 먼저 왔다.

돌아갈 시간이 다가와서 아쉽고 애썼다.

그리움도 애뜻함도 흠씬 느껴볼 새 없는 공단도시의 생활 쭉그리고 있던 그리움들이 그리워질려고 한다.

7. 사랑

지친 나그네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북돋아 주었던 ‘달에 물들다’의 넓은 연결님 가족, 변방의 활동가들에게 ‘폭삭 속았수다’라고 토닥여 준 ‘파랑’의 사랑으로 꿈같은 휴식을 하고 다시 ktx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온전히 우리를 살피고 돌보아준 ‘폭삭 속았수다’를 이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김녕에서 진심을 만나다

이은아,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무국장

이보은님으로부터 파랑의 활동가 지원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고 내심 저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못 갔으면 어쩔 뻔,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일 이틀 전에 숙소 주인장이신 연결님이 문자로 숙소와 숙소까지 교통편을 잘 알려주시고 우리가 탄 비행기 도착예정시간을 물어보시더니 도착시간 이후의 101번 버스 시간까지 캡처해서 사진을 보내주시어 편안하게 숙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달에 물들다”는 1인실이라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여행하면서 함께 잠자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세 사람 정도는 다인실에서 같이 묵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숙소의 컨디션은 좋았습니다. 다만 나이가 더 들면 이 계단 있는 방에 묵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계단이 가팔라)

에니어그램은 십 년도 훨씬 전에 양산에서 단체활동가들과 진행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썩 와닿지 않아 내심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지에니어그램의 진행자이신 넓은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색깔과 번호를 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도와주셔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나를 찾는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 - 때로는 너무 온정적이고 경계가 없는 - 을 있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나에 대한 공부를 넘어서 관계에 대한 생각과 비전(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같은...)을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넓은님과 연결님, 두 분이 너무나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조식도 준비해주시고, 정성껏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셔서 평소에는 하기 힘든 제 얘기도 많이 털어놓고 같이 간 두 동료의 이야기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에 취업, 두 번의 해고와 복직 투쟁, 이어서 비영리단체 활동가로 살아오면서 내 안에 소복소복 쌓여왔던 냉소와 무기력과 패배의 감각이 살짝 흩어지고 따스한 진심이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시간, 짧다면 짧은 2박 3일 동안 일상을 벗어나 평소의 고민과 생각을 붙잡고 나눌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녕’에 몰들다

이효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통·번역사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이주민들의 현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이주민이, 왜? 뭐가 어때서...” 이주민이라서 받는 차별, 이주민이라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주민이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제도적 문제점 속에서, 일상적 경험에 있어 체감하는 차별을 거부하는 액션 많이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찰나에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가서 활동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주민활동가’의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동한 지 어느덧 8년이다. 이쯤이 되면 이주민들의 현실도 나아지고 단체의 안정적 운영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했는데...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비자변경, 폭력...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현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단체의 ‘안정’에 있어 그만 힘이 빠지고 스스로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왜 활동을 하고 있지?” 활동에 대한 의미에 있어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다. 블랙홀에 빠져 있는 나의 손을 늘 붙잡아 주는 지역에 있는 활동가 선배들이 있어서 그는 나만의 블랙홀에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았다.

‘폭삭 속았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제주도에 다녀왔다.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무엇인지를 몸속부터 느끼고 왔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갔던 것 같다. 이번처럼 어디로 간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너무 가벼운 채로 ‘쉽’의 여정에 나섰다.

수지에니어그램은 전에 해봤지만 그때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돋우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통해 내가 정녕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시 한 번더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김녕의 노을도 부러워하는 정도였다. 숙소는 매력적이었다. 1인 숙소는 처음이었다. 때론 같이, 때론 혼자, 혼자 방에 누워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시간은 나에게서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은 열정을 돋우는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피점화가 된 느낌이었다.

‘김녕’, 매력적인 지역인 것 같다. 앞으로 한달살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는 이번 쉽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많았다. 언어로 표현하기에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좋았다. 일기예보를 들고 제주의 비바람이 걱정이 되었는데 신기하기도 저녁에 잘 때는 비가 오고 아침에 깨어나니 해가 떠 있었다.

나는 ‘김녕’에 물들었다. 설 수가 있어서 좋았다. 사람이 좋았다. 넓은, 연결님이 준비해준 아침을 생각하며, 받아온 기념품인 컵으로 나의 찻장을 장식하였다.

‘활동가’라는 이름은 다소 무게가 있게 느껴지지만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보겠다. ‘김녕’에 물들다... 이번 ‘쉽’ 프로그램 계획을 해주신 파랑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에게 보내준 관심은 바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김녕’ 기다려라, 나 다시 간다!

♠ 추가 : 부족한 점, 개선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 (교통 및 이동, 숙소, 식사, 프로그램)

저는 이번 프로그램 딱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도 같이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적당한 것 같아요.

굳이 말하려고 하면 하루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ㅎㅎ

너무 좋았습니다.

별첨자료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쉼 프로그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진행 : 2024년 7월 1~12일

▶ 응답자 : 총 49명

한국 사회의 인권이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고통의 곁을 지키며 기록하고 행동하는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인권운동의 취약한 기반으로 활동가들의 성장과 재생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활동가들은 성장하기보다 소진되기 쉽고, 때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2월 문을 연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에서는 '여럿이 함께, 더 힘차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인권운동을 위해' 활동가들이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를 수 있는 재충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에 앞서 먼저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6.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드림

051-710-7125 / rights.parang@gmail.com / parang.or.kr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2, 4층

(문의 : 010-2645-1758 재인)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쉼 프로그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활동가 개인 사항>

1.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활동하고 있는 단체명 혹은 활동 부문을 말씀해주세요.)

1	노동인권연대. 성평등위아	26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
2	노동해방 마중	27	부산학부모연대 활동가
3	돌봄서비스, 일차의료	28	부산한살림 / 조합원 활동
4	마을교육공동체 <거꾸로놀이터>	29	부산환경련 (전)사무처장
5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사무국장	30	부산환경운동연합
6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31	부산환경운동연합
7	부산겨레하나	32	상담소
8	부산겨레하나	33	여성
9	부산광역시인권센터	34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10	부산사회적경제포럼	35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11	부산어린귀어센터	36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12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탈핵	37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살림상담소
13	부산여성회	38	이유순(부산여성회)
14	부산여성회	39	이주민과함께
15	부산여성회	40	이주민과함께
16	부산여성회	41	장애인단체
17	부산여성회 / 여성단체	42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18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4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9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상담활동	44	케세라, QTQ, 홍예당
20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45	귀어
21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46	귀어문화플랫폼 홍예당
22	부산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47	홍예당 / 케세라 (귀어)
23	부산지역일반노조	48	희망바라기
24	부산청년유니온	49	QIP
25	부산포럼	30개 단체, 49명 참여	

2. 현재 활동 형태는 어떠하십니까?

○ 상근 ○ 반상근 ○기타



응답 48명	자체 공로 휴가 중
	활동할 때만

3. 얼마나 활동하셨나요? (현재 활동 단체 재직 기간 / 전체 활동 기간을 모두 적어주세요.)

ex) 1년 2개월 / 15년 2개월

	현재 단체 재직 기간	전체 활동 기간		현재 단체 재직 기간	전체 활동 기간
1	0년 4개월	0년 11개월	26	5년	30년
2	1년(홍예당)	6개월(QTQ) 2년 6개월(케세라)	27	6년 10개월	동일
3	1년		28	6년	10년
4	1년		29	6년	6년
5	약 1년(홍예당)	약 7년(케세라)	30	7년	
6	1년 10개월		31	8년	
7	1년 6개월	8년 11개월	32	8년 9개월	
8	2년 3개월		33	9년	
9	2년 5개월	44년	34	약 9년	
10	2년 6개월		35	10년	
11	2년 6개월	15년 6개월	36	10년	
12	2년 8개월		37	10년 5개월	20년
13	2년 2개월		38	11년	
14	2년 6개월	6년 3개월	39	12년	
15	3년		40	12년	
16	3년		41	15년	24년
17	3년 6개월 (노동인권연대)	6년	42	16년 2개월	
18	4년		43	18년 2개월	
19	4년 2개월	6년 1개월	44	20년	
20	4년 2개월	9년 8개월	45	20년	
21	4년	15년	46	20년	
22	5년		47	20년 6개월	
23	5년 1개월		48	21년 6개월	
24	5년 6개월		49	29년	
25	5년 7개월		전체 활동 기간 기준 10년 미만:29명 / 10년 이상:10명 / 20년 이상:8명 30년 이상: 1명 / 40년 이상: 1명		
현재 활동단체 재직 기간 기준 10년 미만:34명 / 10년 이상:9명 /20년 이상:6명					

4.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쉽의 경험>

활동하면서 쉬고 싶다고 느꼈거나, 실제로 쉬어본 적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5.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2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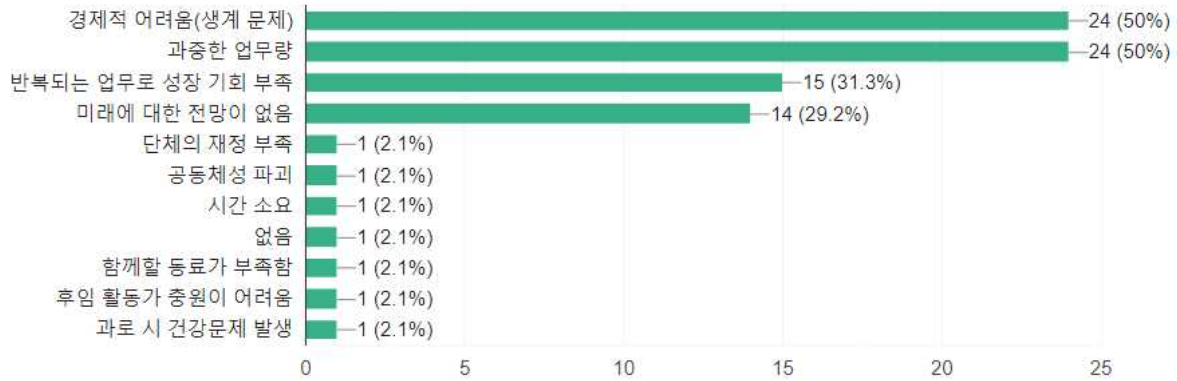
- ☐ 경제적 어려움(생계 문제)
- ☐ 과중한 업무량
- ☐ 반복되는 업무로 성장 기회 부족
- ☐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음
- ☐ 기타

경제적 어려움(생계 문제)	24명 (50%)
과중한 업무량	24명 (50%)
반복되는 업무로 성장 기회 부족	15명 (31.3%)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음	14명 (29.2%)

기타

단체의 재정 부족	1명 (2.1%)
공동체성 파괴	1명 (2.1%)
시간 소요	1명 (2.1%)
함께할 동료가 부족함	1명 (2.1%)
후임 활동가 충원이 어려움	1명 (2.1%)
과로시 건강문제 발생	1명 (2.1%)
없음	1명 (2.1%)

응답 48개



6.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 경제적인 여유
- ☐ 휴식 및 휴가
- ☐ 전문성과 역량 키우기
- ☐ 기타



7. 활동 중 안식월, 안식년 등 쉼의 경험이 있으시나요?



7-1. 있다면, 쉼의 기간과 연도를 말씀해주세요. ex) 3개월 / 2015.6

1	5일	2024.4
2	1주일	2024.4
3	1개월	2017
4	1개월	2023.8
5	1개월	2023.11
6	1개월	2022.09
7	2개월	
8	6개월	2015.8
9	10개월	2010년 3~12
10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11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던 이직 기간이 그나마 쉼의 기간이었음.	

<재충전의 경험>

활동가를 위한 쉼 또는 재충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8.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셨나요? ex) 마음돌봄, 국내외 여행 등



8-1.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프로그램명, 주관, 기간)

1	민들레기금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기획 + 인솔
2	인권파랑 몸, 마음돌봄
3	2023년 마음, 건강검진
4	건강돌봄 지원사업,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2024.04.01~
5	건강돌봄-건강검진
6	국내여행 제주도 2박3일
7	숲에서, 부산시, 1일

8	만들기 프로그램, 여행
9	짧은 여행 긴 호흡 / 한국여성재단 / 2016년 베트남 5박 6일
10	6/6 친구사이x부산아이샵, 성소수자 마음돌봄
11	국외여행/ 5.18재단/ 2010년/ 10일
12	사회복지협회 양산 숲애
13	민들레기금, 캄보디아 방문
14	내일의 리더,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AVP)
15	실무자 양성프로그램
16	활동가 쉼 프로젝트 1주간 캄보디아 / 기억이 잘 안남
17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활동가 휴식 프로그램 / 2~3일
18	이주여성 활동가 마음건강 워크숍, 이주민과함께, 2일간(2021.7.14~7.15) 2023 인권활동가 네트워킹 워크숍,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1일간(2023.11.4)
19	지리산이음, 비영리 활동가 네트워킹 캠프, 2박3일

8-2.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자기성찰 프로그램 -> 강사과정 / 네팔 연수
2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좋았음
3	심리상담 비용이 크고 부담되어서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처음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4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좋았다
5	건강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	달려가기 위한 재충전의 쉼
7	숲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쉴 수 있어서 좋았다
8	동료들과 함께 더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좋았음
9	같은 분야 연대체 대표들과 함께 온전히 쉼 프로그램으로 다녀와서 좋았다. 인생선배들과 함께 한 시간.
10	부산에서도 쉼 프로젝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1	활동가 업무에서 벗어나고 단절해 둘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쉼에 집중할 수 있었음
12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쉼만 가진 것이 좋았다
13	활동 현장을 떠나 쉴 수 있었다는 점
14	새로운 경험, 좋은 사람, 장소 선정 등 그저 좋았습니다.
15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에 관해 얘기해볼 수 있어 좋았음
16	직접 진행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 좋은 곳. 맛있는 음식
17	타지에서의 휴식 기회
18	다른 지역 다른 부문의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았고, 활동가를 힘 나게 하는 것이 결국 동료 활동가라는 생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취지와 선배 활동가들의 뜻도 좋았음. 하루 1꼭지 정도의 프로그램 외에는 굉장히 느슨한 일정과 편안한 분위기가 활동가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느껴졌고, 참여한 활동가들간의 네트워킹과 쉼에 집중한다는 인상을 받아 좋았음. 태풍이라는 날씨 변수로 예정했던 산행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는데, 카페에 가서 팔빙수 먹고 낮잠도 자고 그야말로 빈둥거려도 좋으니 원하는 대로 쉬라고 열어두고 크게 개입하지 않는 기획/운영자의 태도/역량이 인상적이었음. 네트워킹이 목적이었던 만큼, 자발적 후속모임에 대한 지원금도 있어서 후속모임들도 진행되고 있음.

8-3.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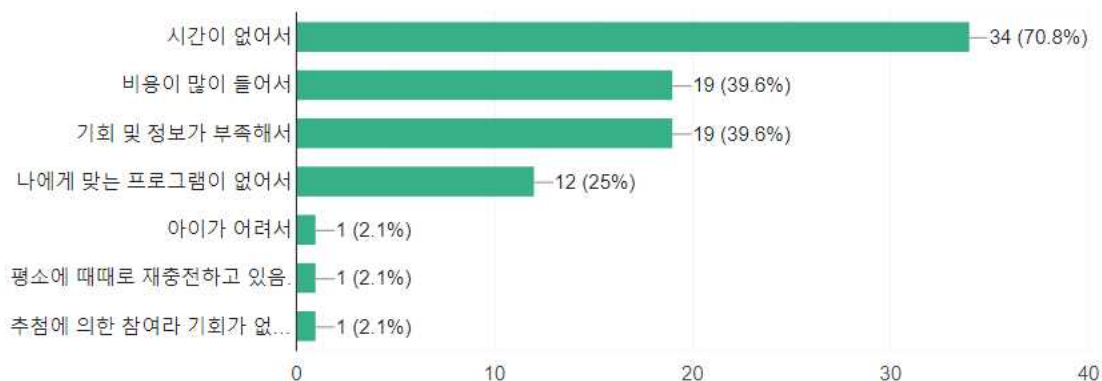
1	절대적인 시간 부족
2	건강검진 만 적용되고 그 이후 병원 진료와 연결되지 않아 아쉬웠음
3	없음
4	성별 선택란에 기타 혹은 직접 기재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없음
6	시간이 너무 짧다
7	짧은 시간, 개인 시간 없음
8	예산과 시간의 부족
9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10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체가 힘들기도 했다
11	짧았음
12	좋았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3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의 휴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재
14	아쉬웠던 점이 없었다.
15	성비가 9:1로 치우쳐 1명뿐인 남성활동가가 다소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었고, 활동연차는 다양했지만 중견활동가로서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나눌 만한 분은 계시지 않아서 주로 저연차 활동가들의 고민상담을 받는 '꼰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 약간 아쉬웠음.
16	시간이 없어서 일정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9. 쉽 혹은 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 개 선택)

- ☐ 시간이 없어서
- ☐ 비용이 많이 들어서
- ☐ 기회 및 정보가 부족해서
- ☐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 ☐ 기타

9. 쉽 혹은 재충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여러 개 선택)

응답 48개



시간이 없어서	34명 (70.8%)
비용이 많이 들어서	19명 (39.6%)
기회 및 정보가 부족해서	19명 (39.6%)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12명 (25%)

기타

아이가 어려서	1명 (2.1%)
평소에 때때로 재충전하고 있음	1명 (2.1%)
추첨에 의한 참여라 기회가 없었음	1명 (2.1%)

<부산에 이런 쉽이 있으면 좋겠다>

쉽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셨던 것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10. 쉽, 재충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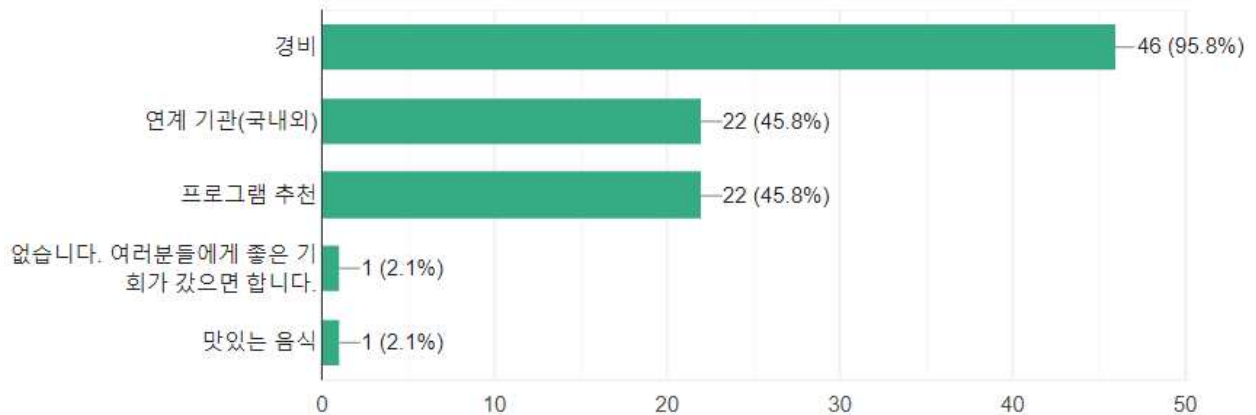
ex) 제주 한달살이, 해외 연수, 하고 싶었던 교육 참여 등

1	워킹홀리데이? 한 달 정도 국내외, 그리 속도가 빠르 지 않고 자연이 좋은 곳의 어느 단체 에서 인턴십 한다면~	24	제주 삼달다방 한달살이 장애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열어 운영 중인 곳인데요. 활동 가들을 대상으로 정말 최고의 쉽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 니다.
2	해외 연수	25	꼭 제주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보름 혹은 한달살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해외 연수	26	국내 2주살이 (한 달도 넘 길어요)
4	해외 활동 관련 연수	27	여행
5	해외 연수	28	여행
6	해외 연수, 역량강화 교육	29	외국의 여성사박물관이나 유적들. 쉽이 있는 역사 기행 등
7	해외 연수	30	힐링(숲 1박2일)
8	연수	31	템플스테이
9	해외 연수, 제주 한달살이 등	32	호캉스하며 독서하기
10	템플스테이, 해외 연수 등	33	시골의 자연 속에서 기타를 치거나 노래 배우기. 함께 영 화 보기.
11	제주 한달살이	34	오롯이 쉴 수만 있는 시간과 공간이면 좋을 듯:-)
12	한달살이(꼭 제주는 아니어도)	35	운전 연습, 온천여행, 해외여행
13	제주 한달살이	36	하고 싶었던 교육 참여 (or 치유 겸 역량 강화)
14	제주 한달살이	37	교육 수강, 해외 한달살이, 타활동, 기관 봉사활동, 운동프 로그램수강
15	제주 한달살이	38	역량강화 등 교육 참여
16	제주 한달살이	39	AI, 미디어 등 교육 수강
17	제주 한달살이	40	하고 싶었던 교육 참여
18	제주 한달살이. 올레길 걷기	41	몸살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

19	제주살이!!!	42	이 활동 이후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전망 찾기. 명상견기
20	일주일 살기 (제주, 거제, 남해 등), 교육	43	일상과 병행가능한 취미 찾기
21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주 일주일 지내기	44	활동가들은 아무래도 쉬는 것도 다음의 활동을 위해 쉰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보는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	일주일 여행. 겨울 제주 한달살이	45	다른 단체 활동가와의 만남 혹은 간담회
23	어디든지 최소 2주 정도의 떠남	46	잘 모르겠다.

11. 쉼, 재충전을 위해 지원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 개 선택)

응답 48개



- 경비
- 연계 기관(국내외)
- 프로그램 추천
- 기타

경비	46명 (95.8%)
연계 기관(국내외)	22명 (45.8%)
프로그램 추천	22명 (45.8%)

기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갔으면 합니다.	1명 (2.1%)
맛있는 음식	1명 (2.1%)

12. 부산에서 활동가를 위한 씬, 재충전 프로그램이 열린다면, 신청하시겠습니까?



응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부산인권물결찾음 파랑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 연산에디파크 4층

Tel. 051-710-7125 | Fax. 051-710-7126 | E-mail. rights.parang@gmail.com

Homepage. www.parang.or.kr